

목 차

제 1 장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현황 및 운영 실태분석-----	1
1) 세 가지 학교스포츠 클럽, 세 가지 학교체육 -----	2
2)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흐름 이해하기 -----	5
3) 학교스포츠클럽의 발전, 학교체육의 전성시대 -----	18
제 2 장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생스포츠복지 방향 설정 -----	21
1) 복지의 개념과 학교체육에서의 시사점 -----	22
2) 국내 학생스포츠복지 동향 -----	25
3) 국외 학생스포츠복지의 동향 -----	29
4) 학생스포츠복지의 개념과 방향 -----	34
제 3 장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의 운영 및 성과-----	42
1) 학교운동부 운영에 영향을 미친 최저학력제 성과 -----	42
2)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시행 적절성 평가 -----	49
3) 학생선수의 학습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방향과 과제 -----	57
제 4 장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실태 분석-----	70
1)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현황 -----	71
2)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분석 -----	79
3) 학생선수 직업진로 교육의 방향 -----	91

제 1 장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권민정**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우리나라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5개년 간(2007년~2011년) 추진해 온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체육 현장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도입기(활성화 여건 조성)-확산기(양적 확대 추구)-전환기(질적 성과 추구)-도약기(다양한 역할 수용)의 양상을 드러내면서 발전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최근 발표된 체육수업시수 확대 정책과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존재하고 있어 학교체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확대와 발전의 균형을 위한 담론, 체육수업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담론, 학교스포츠클럽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담론, 학교체육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담론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본래 의미를 구현하고 향후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과체육 수업과의 상생 도모, 수요자의 특성 고려, 한국의 교육 환경 고려, 스포츠클럽과의 연계 확대와 같은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도약과 질적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담론과 정책적 과제 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권민정(2012)이 한국체육학회지 51권 5호에 발표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전개 과정 분석 및 교육적 담론'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권민정 박사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2년 8월까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를 전담하였다. 현재에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생선수 진로 설계' 연구를 전담하면서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중이다.

I. 서론: 학교 안에는

- 세 가지 학교스포츠클럽, 세 가지 학교체육 활동

학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된 스포츠클럽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¹⁾ 2007년, 학생건강 악화로 인한 학생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과체육 수업 외의 다양한 체육활동들을 통합하여 정부 주도의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한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²⁾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두 가지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³⁾

- ✓ 모든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것
- ✓ 운동부 본래의 기능인 교육적 활동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

학교스포츠클럽이 도입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체육 현장에는 위의 두 가지 도입 배경을 토대로 한 정책적인 시범 사업과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강조 정책이 쏟아져 들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2012년 2월, 국가·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에 인성교육 방안 중 하나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그 후속 대책으로 「체육수업시수 확대」 정책이 등장하면서 그 확대의 중심에도 학교스포츠클럽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현재의 학교스포츠클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학교체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교육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학교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게 하는 고

1) 허현미·김선희(200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개선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7(5), 203-219.

2) 교육인적자원부(2007).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 지방교육지원국.

3) 허현미·김선희(200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민거리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최근 학교 현장으로 투입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들이 각각의 독립된 정책으로만 존재할 뿐 정책 간 상호보완과 상생을 위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안에는 수많은 학교 체육 정책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 하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관련 정책들이 존재한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학교체육이라고 느낄 정도로 학교체육 현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일색이다. 얼핏 보면, 마치 학교스포츠클럽의 시대가 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들을 바라보며 혼란으로 인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이토록 학교스포츠클럽을 골칫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서두에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채 서로 다른 양상으로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정작 학교 현장, 특히 체육교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정책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또는 유사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본래 의미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결국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본래의 의미 구현은 고사하고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배타로 얼룩진 혼란과 갈등을 낳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오히려 정과체육 수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현재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시행 시기와 정책의 주요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세 가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정책

구분	시행 시기	주요 내용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	2007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억원씩 총 100억원 지원 - 학생등록을 확대 -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확대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2011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의 ‘좋은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 - 총 50개 학교에 약 4천여만원씩 3년간 지원 - 한국의 실정과 각 단위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스포츠클럽 모델의 개발 - 대한체육회의 지원으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모델을 개발 중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2012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후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발표 -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과목’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시간 체육활동 참여 - 2012년 7월, 정규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화 내용 포함

II. 본론: 자세히 살펴보면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흐름 이해하기

1.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도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이로 인한 학생 건강 악화 등 학교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 해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은 점차 변화되어 왔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1) 학생건강 악화 문제의 해소: 학생 건강증진 대책

사실, 그동안 학교 체육은 ‘가치와 분리된 학교체육’으로서 존재⁴⁾해 왔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기본적인 학생 건강증진과 관련된 역할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국 사회 특유의 지나친 성과 위주 교육 풍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림에 따라 학교체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와 상관 관계가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교과목의 경우 본래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도 학교체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학교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방과 후 자율 체육활동으로까지의 연계가 실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악화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신체활동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⁵⁾ 그러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당시의 교육부⁶⁾는 ‘학생

4) 이종영(2011). 학교체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5) 교육부(2007).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 지방교육지원국.

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포함하는 학생 체육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학교스포츠클럽은 국가 수준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정과체육 수업과 함께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건강증진 측면에 대한 역할기대를 안게 된 것이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부여한 시작점이라 수 있다.

2) 패러다임의 전환: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한국의 학교 체육에서 '학교 운동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풀뿌리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다. 학교 운동부를 통해 전국체육대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왔고, 이는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아시아 국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학교 운동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학교 운동부의 비정상적 운영과 그에 따른 교육적 역할의 부재 때문이다. 학교 체육의 영역에서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을 생성해 내는 학교 운동부, 그 안에 존재하는 학생선수들의 엘리트 선수화, 수업결손, 운동부 내 폭력 등과 같은 고질적인 학교 운동부의 병폐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제기되기 시작한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엘리트 체육 중심의 패러다임을 생활체육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⁷⁾

이미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 이전에도 오래 전부터 전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자 한 시도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지역스포츠클럽⁸⁾, 한국형 스포츠클럽⁹⁾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클럽 정책은 성인 중심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

6) 교육인적자원부(2007a).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 지방교육지원국.

7) 교육인적자원부(2007b).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지방교육지원국.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2005).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서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9) 스포츠클럽연구회(2006).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델개발 연구.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아니었다. 즉, 위의 시범 사업 정책들은 각 정책을 주관하는 주관기관의 성격, 지원 대상에 따라 궁극적인 추진 목적이나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학교와 학생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정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스포츠클럽은 단지 시·도 교육청 주관의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시범학교 운영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결국 학교 밖에서의 생활체육 중시 패러다임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 안에서의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쉽지 않았으며, 그 전환을 추진할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학교 사회의 관심과 교육적 비중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최근(2011년)까지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학교 안의 엘리트 체육을 학교 안 생활 체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창의·인성 교육 강조

2007년 국가수준의 개정교육과정 고시 이후 2009년에는 또 한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을 추구한다.¹⁰⁾ 이에 따라 교과별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연구 계획이 마련되었고,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에 따라 지향점이 다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 체육은 정과 체육 수업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에서도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부¹¹⁾는 2011년부터 승리 위주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지양하고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독려했으며, 학생들의 대회 참

10)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학기술부 홍보자료.

11)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학생건강안전과.

가 기회 증가와 다양한 경기 경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리그제 운영 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른 창의·인성 교육의 강조, 학교 스포츠클럽 정책의 지향점 변화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 영향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는 주요한 학교체육 영역 중 하나로 존재하면서 위상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 폭력 근절: 인성 교육의 강조

최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계기였다. 이에 교과부¹²⁾는 올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7대 실천 정책 중심의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에서는 학교폭력 수준이 가장 위험 수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제 한국 사회는 청소년 인성 교육의 강조를 위한 저변 교과로 체육 교과를 주목하게 되면서 정과 외 체육활동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참여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이 정과체육 수업과 함께 인성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교육·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 후로 여세를 몰아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 발표 이후 교과부¹³⁾에 의해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내용을 단위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과 체육 수업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증가시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대폭 확대 정책 또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의한 교육 정책의 변화를 근거로 발생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12) 교육과학기술부(2012a).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13) 교육과학기술부(2012b).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추진 계획. 학생건강안전과.



[그림 1]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2.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전개 과정 및 특성

1) 도입기(2007년)

: 활성화 여건 조성의 시기

교육부는 2007년 5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상태 악화의 심각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¹⁴⁾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위의 13개 종합 대책 중 하나로, 학교 내 일반 학생의 ‘하는’ 스포츠의 활성화 추구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은 학생 중심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학교체육 활성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초기 홍보 역할도 담당하면서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의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이후 2007년 7월,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수립¹⁵⁾하고 본격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범 사

14) 교육부(2007a). 학생건강 증진 종합 계획. 지방교육지원국.

15) 교육부(2007b).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지방교육지원국.

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은 ‘1학생 1스포츠클럽’을 정착시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을 ‘07년 10%에서’ 11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사업 예산으로는 ‘07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5년간의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사제동행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학교 풍토 조성,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국가경쟁력 제고,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활동의 연계를 통한 우수 체육활동 모델 확산이다.

이처럼 2007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시범 사업 준비 과정에서 대두된 핵심 쟁점과 향후 기대를 시범 사업이라는 거시적·장기적 비전으로 이어받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주요 지향점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학교스포츠클럽 저변 확대, 학교 풍토 조성, 모델 확산 등의 내용이 그러한 지향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확산기(2008년~2009년)

: 양적 확대 추구의 시기

2008년과 2009년은 본격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양적 확대 추구의 방향으로 세부 내용이 전개되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의 제시가 학교 체육이라는 큰 교육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확산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특징으로는 운영 현황 자료 제시의 구체화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현황 자료의 제시는 과거 대비 학생 건강 상태와 외국의 스포츠클럽 운영 시스템 비교를 통해 당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구조를 띠었다. 이는 향후 학교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긍정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규모의 확대 측면에서는 전국대회의 개최를 통해 학생 관심도 및 참여율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흥미 유발과 경기력 제고의 역할을 담당¹⁶⁾할 수 있는 리그 경기제의 도입은 수요자 중

16) 김용승(2006). 우리나라 선수의 강인한 정신력. 스포츠과학. 94, 38-46.

심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 외에도 우수 운영 학교 및 담당자 표창, 대회 개최 및 실적 인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대한 노력을 이어갔다.

둘째, 2009년 특징으로는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약을 통한 정책 규모의 확대와 대회 규모 및 참가 대상의 대폭 확대, 지도여건 개선 및 학생 봉사시간 인정을 들 수 있다. 정책 규모의 확대는 교육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의 MOU 체결을 통해 양 부처 공동 정책 추진 과제에 학교스포츠클럽을 포함시킨 부분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스포츠클럽은 교과부 차원의 정책을 넘어 문화·예술·체육을 모두 관장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회 규모 및 참가 대상의 대폭 확대는 전년도 대비 대회 종목 수(4개) 증가와 중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포함한 부분이다. 또한 지도 여건의 개선과 학생 봉사 시간 인정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지도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클럽 참여에 대한 보상을 통해 양적 확대 정책의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들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정책 변화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생들의 실제 참여율 증가를 실현하는 것이 곧 학교체육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학교스포츠클럽 양적확대 추구 시기의 특징과 의미

시기	연도	특징	의미
양적 확대 추구의 시기	2008년	운영 현황 자료 제시의 구체화	긍정적 모델 제시
		대회 규모의 확대	리그 경기제 추진
	2009년	교과부-문광부 공동 협약(MOU)	정책 규모 확대
		대회 규모 및 참가대상의 대폭 확대	클럽 참여 학생 확대
		지도 여건 개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지도자 업무과중 해소 학생 참여 보상

3) 전환기(2010년~2011년)

: 질적 성과 추구의 시기

2010년과 2011년은 좀 더 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정책 실행을 위해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했던 시기이다. 2010년은 질적 내실화 방향 수립, 2011년은 질적 내실화 방안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의 성격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¹⁷⁾ 전환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특징으로는 클럽 등록 목표의 하향 조정, 주말 리그 중심의 대회 운영 추진,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을 들 수 있다. 우선 클럽 등록율에서 교과부의 양적 확대 노력(2007년 8.1%/2009년 27.4%)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드러났으나,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실제 클럽 활동 참여율에 대한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 확산되었다. 이는 2010년을 앞의 확산기와 구분 짓는 큰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회 측면에서는 교내 대회 뿐 아니라 권역별(지역별) 주말리그 대회를 활성화시켜 실제 학생 참여율 증가와 다양한 경험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생활기록부의 클럽 활동 내역 기록은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입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주목받기도 했다.

둘째, 2011년 특징으로는 등록 대상의 확대 및 체육단체 등록, 대회 운영 시스템의 변화, 발전 방안의 다양화 및 구체화,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등록 대상의 확대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해당 경기 단체에도 등록하도록 한 부분이다. 대회 운영 시스템으로는 종목 확대(10개), 전국대회를 종목별 디비전 시스템(2부 리그)으로 운영, 기숙형 고교 대회의 별도 개최 등의 내실화 노력도 주목된다. 또한 전년도에 발표한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의 체계화 시도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시 반영 방안 마련, 전통 종목 보급, 교육 기부 확산, 스포츠 바우처의 도입 등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학교스포츠클럽 선도 모델(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17) 교과부(2010c). 2010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학생건강안전과.

표 3. 학교스포츠클럽 질적 성과 추구 시기의 특징과 의미

시기	연도	특징	의미
질적 성과 추구의 시기	2010년	클럽 등록 목표의 하향 조정	질적 내실화 방향 수립에 중점
		주말리그 중심의 대회 운영 추진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2011년	2011년	클럽 등록 대상 확대/체육단체 등록	질적 내실화 방안 정착(근거 마련)
		대회 운영 시스템의 변화	
		발전 방안의 다양화	

4) 도약기(2012년~현재)

: 다양한 역할 수용의 시기

2012년은 그간의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 성과에 터한 질적 발전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교육적 이슈인 ‘학교폭력’ 과 ‘인성’ 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에 대한 기대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부와 대한체육회가 전년도 선정한 창의경영학교(30개교)를 총 50개교로 확대하는 등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회 종목 확대(20개), 스포츠 강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의 위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도들도 특징이다.

둘째, 교과부(2012b)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확대를 들 수 있다. 정과 체육 수업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을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셋째, 대회 종목의 대폭 확대(32개)와 방과 후 체육활동과의 연계를 적

극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기존의 방과 후 수업이나 ‘토요 Sports Day’와 연계를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기회의 확대를 추구한 부분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간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변화한 정책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대를 안고 향후 질적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약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는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매년 전년도에 정책 실행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정책 전개 과정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 개선, 학생 참여율 증가, 양적·질적 발전의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책 변화나 현장 수용의 강요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불신과 거부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전개 과정

3.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학교체육의 변화를 논하다!

이 장은 앞서 살펴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을 교육적 논리에 의해 쟁점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로 재구조화 한 후,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학교체육의 변화를 논할 것이다. 제시되는 주제들은 반드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학교 체육 정책 또는 교육 정책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복합적인 논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1) 확대와 발전의 ‘균형’을 논하기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 도입기(2007년) 이후 확산기(2008~2009년)의 양적 확대, 전환기(2010~2011년)의 질적 성과 추구, 도약기(2012년~현재)의 다양한 역할 수용 등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변화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¹⁸⁾. 우선, 긍정적 시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교와 학생 수, 클럽 수가 정책 추진 이전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의 확대와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및 관심의 제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 시각으로는 정부의 학생 등록률 증가에 대한 지나친 강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불투명성, 대회의 확대가 또 다른 소년 체전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의 지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 위와 같은 두 가지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즉 학교스포츠클럽이 교육적 논리를 기반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래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흐릿지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하며, 특히 특정 시기별 정책 추진 방향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편중된 교육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양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에 따른 방향으로의 확대 또는 발전 방안 마련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양상도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궁극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활용되는 것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그 자체의 교육적 목적은 잃어버린 채 오직 수단으로서만 인식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둘러싼 동조와 비판, 긍정과 부정의 시각을 아우르려는 노력, 향후 도약의 토대가 되기 위한 성찰 과정

18) 전정선·윤양진(2012). IPA 기법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추진 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51(2), 215-225.

을 중요시하는 균형에 대한 강조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정과체육 수업과의 관계 ‘정립’ 을 논하기

현재(2012년)와 같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위상은 공교육에서의 학교 체육의 위상 정립과 발전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정과 체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 야기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¹⁹⁾ 이는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어 온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정책²⁰⁾과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화 정책²¹⁾에 의한 추진 현황을 근거로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체육 활동이 되었고, 이는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볼 때 정과 체육수업과 차별성이 없는 체육활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문제와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²²⁾.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궁극적 목적, 학교 체육에서 정과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의 관계, 학교 체육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본질 탐색 등과 같은 부분에서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자칫 정과 체육 수업의 자리가 클럽 활동으로 대체 될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과 체육 수업을 통해 배운 체육에 대한 인식, 사고, 태도가 정과 체육 수업 외의 학생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목²³⁾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정과 체육 수업에 함의되어 있는 교육적 가치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이되어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가 실현되고, 이는 다시 학생의 자율 체육 활동 활성화와 정과 체육 수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개 양상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19) 권민정(2012). 학교스포츠클럽, 좌표 찾기와 도약하기. 2012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포럼 자료집. 9-27.

20) 교과부(2012a).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추진 계획. 학생건강안전과.

21) 교과부(2012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2) 중앙대학교(2012). 신한국형 학교체육 모형 개발 및 평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1차년도 연차보고서.

23) 김선희(2012).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생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2012 학교체육진흥 세미나 자료집. 21-40.

3) 개념의 ‘재정립’ 을 논하기

학교스포츠클럽 시범 사업이 도입되면서 당시 교육부(2007b)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을 ‘스포츠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제외)으로 구성, 교육청에 등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이라고 명시하였다²⁴⁾.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도입 당시 학교스포츠클럽의 범위 및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해 집약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존에 다양한 명칭으로 혼재되어 왔던 ‘스포츠클럽’ 과의 차별화 시도였다.

그러나 그간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영 양상을 종합해 볼 때,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학교스포츠클럽이 스포츠 클러스터 등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지역사회 체육 시설 이용의 확대, 생활 체육 지도자 등의 자원봉사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밖과의 연계 및 상호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이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입 초기 정부의 방침에서 엘리트 체육 중심 패러다임에서 생활 체육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시도를 기억한다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체계가 단위학교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 측면에서 그러한 한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위 학교 차원 뿐 아니라 점차 지역 중심의 활성화로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을 현 실태에 맞게 재정립하여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의 변화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책적 과제이다.

24) 교육인적자원부(2007b).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지방교육지원국.

4) 학교체육 ‘시스템’ 을 논하기

한국의 학교체육에서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를 양분하는 암묵적인 선은 학교 체육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다. 그리고 학교체육 분야에서의 교육적 한계 해소를 어렵게 하는 근원이다.

그렇다면, 학교스포츠클럽이나 일반 학생 측면에서의 개선을 통해 학교 체육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의 상호 교류,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한계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에는 종목별 전국 대회를 2부 리그로 운영하며, 1부와 2부가 서로 승·강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2부로, 학교 운동부 리그를 1부로 운영하면서 2부 리그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학생들이 1부로 승급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선진 외국의 클럽 시스템인 피라미드형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쩌면 학교스포츠클럽과 일반 학생 측면에서의 학교 체육 시스템의 변화 시도는 기존의 관점을 거슬러 올라가는 난해한 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것이며, 특히 학교 운동부 또한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場)이어야 함을 주목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의 한 편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제시해 보고, 그 안에서 교육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체육 시스템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III. 결론: 멀리보니

- 학교스포츠클럽의 발전, 학교체육의 전성시대

그동안 한국 사회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선 또는 변화되는 교육 정책의 기초 아래 다양한 차원의 학교 체육 관련 담론이 반영되면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담론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변화 과정 이면에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주도하고 성과를 평가하려는 정부와 이를 실천해야 하는 교육 현장,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개선하여 긍정적인 방향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학계 사이에 암묵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에 의한 논의들은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망을 다각도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이 교육 정책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 교육적 논리와 사고를 기반으로 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논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이상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학교 체육 정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정과 체육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이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앞서 제시한 정과 체육 수업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교육 수요자의 특성과 연계하여 학교급별, 성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교육적 가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과 체육 수업 분야에서 추구해 왔던 수요자 중심의 수업 모형이나 전략 개발 및 적용과 같이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그러한 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한국의 교육 환경에 맞는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부와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및 일반화를 위한 ‘체육교육 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은 이에 대한 좋은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소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넘어 일반화까지 고려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학교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의도를 내포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경험이 졸업 후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에 스스로 가입하려는 의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경험은 단순 재미가 아니라 학습과 내면화 경험이 곧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의 연계를 위한 기초 작업이며,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담론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다.

제 2 장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생스포츠복지 방향 설정

조남용²⁵⁾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본 연구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생스포츠복지 개념 및 방향 설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목표는 학생스포츠복지 개념의 정립, 국내외 학생스포츠복지의 동향 분석, 학생스포츠복지의 방향설정이다.

학생스포츠복지의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범위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서부터 ‘학교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연속체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국내 동향은 SPORT 전략과 토요일 Sports Day등을 살펴봤으며 국외 동향은 중국, 호주, 독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종합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스포츠 복지 개념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복지와 스포츠복지의 공통부분으로, 그 목적은 학생의 인권(건강권, 교육권, 평등권 등)의 소극적 보편성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보편성을 추구한다. 둘째, 그 대상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등 공교육기관, 시간적으로는 학령기의 학생, 그리고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제도적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의미한다. 셋째, 학생스포츠복지의 방향을 정과체육, 방과후 활동, 스포츠클럽, 학교체육시설, IT수업매체, 뉴스포츠, 지역특성스포츠, 전문적 체육교사 등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25) 조남용 전임연구원은 스포츠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문제1> 복지의 개념과 학교체육에의 시사점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 복지의 개념

- 사전적 의미로 복지는 '행복한 삶'을 말함. 현대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 복지국가가 의도한 소임을 다 하려면, 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사회복지의 '상태(복지)로서의 복지'와, '정책(수단)으로서의 복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김상균 외, 2007; 김성천 외, 2009; 김용일 외, 2003).
- '상태로서의 복지'는 '행복, 안녕, 번영 등 인간이 누리고 있는 혹은 누려야 할 가치롭고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정책으로서의 복지'는 '그 바람직한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의미'한다.
-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Meleis, 1985)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독립적(entity) 관점'은 개념을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그 사물로 받아들인다. 즉, 현실의 어떤 실제성과 일치하거나 직접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무엇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경향적(dispositional) 관점'은 개념을 어떤 행동을 위한 습관이나 능력으로 받아들임. 여기에는 습관, 능력에는 개념과 관련된 특별한 정신적(혹은 신체적) 수행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도 포함된다.

□ 사회복지의 개념과 변천과정

● 사회 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도 ‘관점의 범위’에 따라 ‘광의의 개념(Romanyshin, 1971; Friedlander & Apte, 1980)’과 ‘협의의 개념(Kadushin, 1972; Chatterjee, 1996)’으로 구분되고, ‘기능’에 따라(Wilensky & Lebeaux, 1979)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개념 (보편적 복지)’은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또는 조치로 이해하며, ‘협의의 개념(선별적 복지)’은 취약한 계층이나 인구집단에게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잔여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간혹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 또는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며 ‘제도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다양한 복지의 양태와 초점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의 국민적 질병, 기아, 무주택 상태 등의 문제에 벗어나게 하는 즉,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결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생존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복지는 공교육을 통해 직업, 보건, 건강, 사회성 등의 태도를 함양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극적 복지에 초점을 둔다.

‘교육소외, 결손집단’ 즉, 소외계층은 일반적으로 생존적 필요로 기인하여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육복지 정책연구들(김정원, 2008a, 2008b; 류방란, 김경애, 2011) 박재운, 2006; 이시우 외, 2005 이해영, 2006; 한만길 외, 2000; 홍봉선, 2004)이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학생집단’에서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

로 실현하려는 의도 (이기범, 1996; 이돈희, 1999)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쪽으로 교육되고 있다고 지지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교육복지는 적극적 복지에 궁극적인 초점을

이홍우(1980)의 교육복지 개념 정의와 적극적 복지는 다음과 같다.

"(전략)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올바른 교과공부를 통하여 올바른 안목과 태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입시 경쟁과 사회상승에서 성공할 수 없도록 엄밀한 교육의 수월기준을 확립하고 그것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 (p. 102)

이홍우의 '수월기준'은 지금의 입학시험 성적과는 분명 다르며, 교과의 원래 의미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현재 교육과 복지 관계에서 문제점은 '개인복지'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본래적 모습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만길, 2000, 재인용). 이홍우는 교과를 배우는 것이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육이 생존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거나 부를 축적하려는 등 교육본연의 가치 훼손을 막는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각 교과를 온당하게 가르치는 것, 즉, 교육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복지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과교육이 어떻게 복지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따라오게 된다.

<연구문제2> 국내 학생스포츠복지 동향²⁶⁾

□ SPORT 전략

- 비전: '건강한 학생, 멋있는 학생, 즐거운 학교'와 '건강체력평가점수 향상'(51.5점('08 평균) → 58.3점('12))

전략	중점 추진 과제	관련부처
Sport science (스포츠과학화)	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 2) 스포츠 친화적 학교 분위기 형성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 중심)	1) 신체활동 7560+운동 전개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Organization (조직, 협조)	1) 학교체육진흥 관련 법·제도 개선 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확대 구성·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Recreation (재창조)	1) 학교 운동부 교육적 운영 강화 2)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Teaching (교수-학습)	1)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그림 3 <SPORT 전략>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은 과학(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신체 활동(운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법·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등을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 하에 추진하려는 학교체육 주요업무 추진 전략.

26) 정상익(2009)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확대 시행

순발력, 스피드 등 운동기능 위주의『학생신체능력검사(1951년부터 시행)』는 단순측정·기록에 그치고 후속조치(Follow-Up)가 미진하여, 학생들의 체력저하·비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994년도부터 체력검사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했던 체력장제도가 폐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력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체육 전문가들은 비만을 포함하는 건강체력 개념을 도입한 체력검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과부에서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도입을 위해 '05.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6. 2월~'07. 2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서 학생건강체력평가 종목·기준을 개발하였으며, '07~'08년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09년 초등학교, '10년 중학교, '11년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표 11 | 현행 학생신체능력 검사와 변경되는 학생건강 체력평가 비교

구 분	현 행(학생신체능력검사)	현 행(학생신체능력검사)
특징	운동기능체력 위주: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건강관련체력 위주: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특징	초5~고3	초1~고3
검사 종목수	6개 종목(고정형)	필수평가: 5개 종목(12개 종목 중 선택형) 선택평가: 4개 종목(심폐지구력 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등
등급(점수)	1~5급 (종목별 5점, 초: 25점, 중·고: 30점 만점)	1~5등급 (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
관리·처방	NEIS(교육정보시스템) 신체활동 처방 없음	NEIS, On-Line PAPS 신체활동 처방 제공

● '신체활동 7560+운동' 전개

일주일(7일)에 5일이상, 하루에 60분이상 누적(+)해서 운동하자는 캠페인으로 이를 위해 '수퍼 신체활동 10가지' 실천을 권장한다. 슈퍼 신체활동 10가지는 스트레칭, 빠르게 걷기, 페이스(왕복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오르기, 자전거타기, 근력운동, 구기운동 등이 포함된다.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교스포츠클럽은 초(4~6학년)·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등록하고 교내 대회(학급, 학년별 대회), 지역교육청 대회, 시·도교육청 대회, 전국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온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표 2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 목표 및 사업예산('07 ~ '12년)

(단위: 백만 원)

재원		년도	'07	'08	'09	'10	'11	'12	합계
등록율 목표 (등록율 실적)			10% (8.1%)	15% (17.1%)	20%	25%	30%	35%	
사업 예산	교과부		2,000	2,000	2,500	3,000	3,500	100	13,100(75.3%)
	문화부		-	50	50	100	100	100	400(2.3%)
	교육청		-	-	-	-	-	3,900	3,900(22.4%)
	합계		2,000	2,050	2,550	3,100	3,600	4,100	17,400

◎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과부-문화부 공동으로 '09 ~ '12년까지 다양한 학교운동장(잔디운동장) 1,000개(5,000억원) 조성, 체육관 100개소(1,600억원) 건립을 추진한다.

표 4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연차별 계획('09~'12)

(교/억원)

구분		'09	'10	'11	'12	계
조성목표	계	200	200	300	300	1,000
	교과부	100	100	150	150	500
	문화부	100	100	150	150	500
사업예산	계	1,000	1,000	1,500	1,500	5,000 (100%)
	교과부	171	171			342 (7%)
	교육청	179	179	525	525	1,408 (28%)
	문화부(공단)	350	350	525	525	1,750 (35%)
	지자체	300	300	450	450	1,500 (30%)

총 5,000억원(1,000개교 × 5억원) / 1교당 조성비 : 5억원

표 5 | 체육관 건립사업 연차별 계획('09~'12)

(교/백만원)

구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교)		25	25	25	25	100
소요예산 (억원)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100%)
	문화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25%)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50%)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25%)

총 1,600억원(100개소 × 16억원) / 1교당 조성비 : 16억원

<연구문제3> 국외 학생스포츠복지의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스포츠복지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은 교육과 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구분되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 체육을 교육관련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다룬다. 외국의 학생스포츠복지 동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영국

2003년 9월 ‘모든 어린이의 문제(EveryChild Matters, ECM)’라는 정책 제안서(Green Paper)를 발표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4년에 어린이 법(Children Act)을 공포했다. ECM에서 지적하고 있는 분절적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비스 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거나 문제가 극심해졌을 때만 지원을 받게 된다.
- 둘째, 여러 전문가들이 아동과 접촉하지만 한 아동이 연속적인 또는 통합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셋째, 여러 기관이 재정을 지출하고 있지만 통합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 넷째, 아동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며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한다.
- 다섯째, 각 서비스가 한 가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ECM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출생부터 19세까지)을 위한 지원(services)을 개혁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여러 지원을 통합하여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ECM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목표는 ① 건강 ② 안전 ③ 즐기고 성취하기(Enjoying and achieving) ④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 ⑤ 경제적 여유 성취(Achieving economic wellbeing)의 다섯 가지이다.

2004년에 발표한 ‘모든 어린이의 문제: 어린이를 위한 변화(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에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국가 수준의 틀을 제시했다.

2007년에 발표한 ‘아동을 위한 계획: 밝은 미래를 위한 설계(The Children’s Plan: Building Brighter Futures)’에서 2020년까지의 학교 개선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그 골자는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이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이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의 학습, 건강,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네덜란드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2007년 관련 4개 부처(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를 포괄하는 ‘우산’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umbrella’ ministry)로 청소년·가족부(Ministry of Youth and Families)를 신설했다. 이는 증가하는 아동 학대, 아동의 문제 행동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청소년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취학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소년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청소

년 보호 기관, 학교, 기타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서만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신설된 청소년·가족부는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4개 부처에서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되, 청소년·가족부 장관과 총책임자(Director-General)의 지휘를 받고, 청소년·가족부에서는 2007년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기회들: 청소년과 가족 프로그램 2007~2011(Every Opportunity for Every Child: Youth and Family Programme 2007~2011)’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확장된 (extended)학교’와 비슷한 ‘Brede Schoo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정부가 학교, 경찰, 건강, 복지,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호주

중앙정부 수준에서 아동의 교육과 기타 지원 관련 업무는 교육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와 가족·주택·지역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에 분산돼 있다. 최근 들어 아동 지원,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ies for Children Initiative)’는 강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2004-2009) 중 하나이다.

이 전략은 국가 수준의 영아 서비스 계획(Australia’s National Agenda for Early Childhood)에 따른 것이다. FaHCSIA는 5세까지 아동과 그 가족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45개 지역에서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통합 체제는 정부, 비정부 기구, 서비스 공급 기관과 국가 수준의 연구 기관 협력체(Australian Research Alliance for Children and Youth, ARACY)를 구성하였는데, ARACY의 임무는 통합 체제를 구성하는 각 주체의 협력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퀸즈랜드(Queensland)주에서는 교육·훈련·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the Arts), 건강지원부(Department of Health), 장애인 지원부(Department of Disability Services)가 2020년까지의 비전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고, 여기서 영아에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영아 교육과 보호를 위한 기구(Offic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 기구는 교육·훈련·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the Arts)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 OECD 국가들

OECD 국가들은 교육평등 (equity in education)의 이념 실현을 위해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을 잔여적 (residual) 이념에 근거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태수 외, 2004).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은 그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 불평등 해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 전체의 인적 자원 개발, 사회통합, 그리고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기회'의 문제에 쏠려 있었다. 이 단계에서 교육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교육, 특히 학교교육 기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분, 계층, 남녀의 차이 없이 해당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함. 예를 들면 돈이 없어 학비를 낼 수 없거나 학교가 멀어서 목 다니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무상교육의 실기, 도서 벽

지의 학교 설립 등은 이러한 평등관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회가 확대된 이후 교육평등의 주된 관심은 교육 '조건'의 평등으로 발전하였다. 특, 학교에 다니되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의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학교 시설, 교사의 전문성 수준, 주변 환경 등이 다르다면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설사 성적과 같은 교육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 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어 주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교육조건의 평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교육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게 된다. 교육의 목적이 단지 학교를 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 즉 교육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낮은 학습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학습에 불리한 학생을 역차별 함으로써 교육의 결과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적 평등 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프랑스와 영국의 교육투자우선 지역 정책 등이 있다.

<연구문제4> 학생스포츠복지의 개념과 방향

□ 학생스포츠복지의 개념

● 학생스포츠복지의 배경

학생스포츠복지는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체육교과에서 바라본 학생은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로 구분된다. 일반학생을 위한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된다.

학교체육의 근본 목적은 체육활동을 통한 교육적 가치의 실현으로, 마땅히 '교육'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핀 '교육복지'와 연관이 깊고, 또한, 학교체육은 무성한 가지(생활체육)와 탐스러운 열매(전문체육)를 맺는 나무의 뿌리이므로, 앞에서 본 '스포츠복지'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 교육복지, 그리고 스포츠복지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학교체육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학생스포츠복지는 교육복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극적 복지를 추구한다. 교육복지의 적극적 복지는 교과교육을 근간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학생스포츠복지는 보통교과로서 '체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의 지향점인 적극적 보편성을 실현하는 좋은 터전이 될 수 있겠다.

현재의 체육교육의 목적인 전인적 발달은 개인적 인권의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인권의 존중은 개인적 인권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즉 사회적 인권의 존중도 복지국가의 건설과 유지에서는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빠지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집단'적으로 방어하려는 목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1; 복지국가SOCIETY 정책위원회, 2008; 이상이, 2011; 이태수, 2011)이 있기 때문에, 체육교과의 목적에 반드시 '인권 존중'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고, 그

것이 교육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적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체육교과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학생스포츠복지의 개념

‘학생스포츠복지’는 교육복지와 스포츠복지의 공통부분으로, 그 목적은 학생의 인권(건강권, 교육권, 평등권 등)의 소극적 보편성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 대상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등 공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으로는 학령기의 학생에 해당하는, 마지막으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제도적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다.

● 학생스포츠복지의 목적: 인권, 자아실현, 그리고 복지의 형태

- 국가인권위원회(2011)의 인권에 대한 해설은 학교체육의 목적으로서 인권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 줌.

인권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관계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인권이 온전히 실현된 곳에서는 모든 개인 사이의 착취와 억압이 사라지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인권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집단 생활이 지향하는 한 가지 궁극적 목적이 된다. 모든 개인은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 대우해주는 질서 속에서 억압적이며 위계적인 질서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pp. 112-113)

인권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1세대 인권(생명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이며, 이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적 필요성에 초점을 두는 사업에 해당함)'에서 '2세대 인권(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등이며, 이는 교육복지 및 스포츠복지에서 추구하는 소극적 복지정책의 목적에 해당한다)'을 거쳐 현재 '3세대 인권(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의사소통권 등이며 이는 교육복지에서 추구하는 적극적 복지의 목적에 해당한다)'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한편, 인간의 자아실현(Maslow, 1943) 욕구는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욕구이며, 그 하위에 자기존중, 소속과 애정, 안전, 생리적 욕구의 순서로 낮아짐.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계층적 욕구를 하나하나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국가임.

인간의 단계적 욕구와 복지의 형태를 연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적 욕구(음식, 수면)와 안전의 욕구(위험의 회피)는 인간의 생명유지 즉 생존권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펼친 복지 정책을 사회복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타인과의 만족스러운 관계)와 자기존중의 욕구(스스로를 가치있는 인간으로 수용)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단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소극적 보편성)가 있는 후어나 가능하므로, 국가가 이를 위해 펼친 정책은 교육복지와 스포츠복지라 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이상의 실현)는 복지국가를 구현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계획, 실행, 반성 등의 순환적이며 역동적인 삶의 태도를 학습(적극적 보편성)해야만 가능하므로, 국가가 이를 위해 펼친 정책은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이며, 이는 교과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므로

(체육수업에서 이러한 태도(최근에는 이 태도가 ‘활동적인 생활방식’ (active lifestyle)이라 불리기도 한다 (손천택 외, 2011)) ‘학생스포츠복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스포츠복지의 방향

● 정과체육수업의 내실화

현재 정과체육수업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온당히 공부되고 있지 않고, 주지교과를 위한 공부시간으로 전용되는 경향이 있다. Ornstein(2004)는 사회통합 및 인권신장 차원에서 학교체육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학교체육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더불어 인권신장, 그리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즉 활동적인 생활방식의 습관화를 위해 적정 수업 시수를 확보함이 필요하다.

● 방과후 활동(스포츠클럽)의 상세화

방과후 활동은 맞벌이 등으로 방과후에 혼자 또는 아동끼리만 시간을 보낼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사의 지도하에 즐거운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학습지도, 공동체 활동, 체육 활동, 현장학습, 사회성 개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에서는 주로 체육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정책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 실질적인 난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해화, 2003).

최근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4-4-4 수업시수 확대, 스포츠강사 충원 등 다양한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프로그램이나 강사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또한 정과 체육수업과의 연계 방침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1교 1기 · 1인 1기의 활성화

입시위주의 생활패턴, 학교 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 등으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건강권 훼손을 우려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구체적 방안인 1교 1기 · 1인 1기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며, 학교운동부의 전문화를 통한 학생선수 육성과 더 나아가 지역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교 1기 · 1인 1기 활동의 참여는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최소한 한 종목에서만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평생 체육의 기반을 마련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 학교 체육 시설의 확충, 활용 그리고 사후 평가 관리

교과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잔디구장 등의 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2008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운동장 없는 학교가 더 늘어갈 것으로 전망됨(박수균, 200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적인 학교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설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복합시설은 정과체육수업, 방과후활동, 그리고 지역스포츠클럽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보통 학교시설은 해당학교의 운동부가 독점하거나 수업용도로만 활용하는 실정이므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균등하게 체육시설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모자라는 학교체육시설은 인근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관할 구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개방, 지역시설의 활용 등의 항목으로 사후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체육수업 매체로서 IT 기술의 활용

신체 활동을 매개로 진행되는 체육수업의 특성상 교과서나 교사의 설명, 시범만으로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나 자료를 탑재하여 학생의 자주적 학습이 가능토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웹 자료는 PAPS와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건강 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해 PAP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한다면, 학생의 체력 상태와 질병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여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뉴 스포츠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신체활동가치 중심으로 체육수업으로 교육과정의 방향이 선회하기 전에 학교체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육상, 체조,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등의 스포츠 기술의 습득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기술이 주 2회 정도의 시간으로 다양한 체격 수준별, 성별,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도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음.

학생의 재미와 관심 그리고 내적 동기를 함양하기 위해 티볼, 얼티밋 골프, 핸들러, 킨볼 등 비교적 쉽고, 간단한 뉴스포츠 중심으로 수업을 시작하되, 학년과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인 1기를 갖추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스포츠의 활용

과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었다는 반성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에 있어서 '필수 종목'과 '선택 종목'의 제시에 걸쳐, 최근에는 내용선정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장 교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자율권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낸 해양스포츠, 동계스포츠 등을 스포츠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학교평가 기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활용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 전문적 실기 능력을 갖춘 체육교사 양성

전문적 체육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은 실기능력이다. 이를 위해 직무연수 및 일반연수 등에서 실기 종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전문화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체육교사가 전문적 특기 능력을 갖추면 학생들의 특기 종목에 따라 1인 1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정과체육 수업의 질이 높아지며, 수준별 수업이나 스포츠클럽 활성화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체육보조교사 활용

체육교사의 잡무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수업지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체육보조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범대생의 교육실습을 보다 장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길어진 교육실습에 대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방학 때 학점집중이 수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육보조교사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직문화를 미리 맛보게 하고, 교수능력을 함양하게 하며, 동시에 현직 교사를 보조하여 정과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일반 교사의 지역스포츠클럽 가입 권고

스포츠클럽제는 학교 폭력의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부족한 스포츠강사를 대신하여 일반 교사들도 스포츠클럽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체육교과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스포츠클럽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일반 교사에게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인센티브로 지역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권유하는 것도 일반교사들의 체육교과에 대

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운영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스포츠복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관련 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 여러 교사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일반교과 혹은 체육과 출신, 체육보조교사 등)가 학생과 접촉하긴 하지만, 한 학생이 연속적이며 통합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기관이 재정을 지출하지만,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스포츠복지의 질을 높이려면 관련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스포츠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소외 계층' 을 위한 학생스포츠복지의 방향

학생스포츠복지에서 '소외 계층'이라는 대상을 밝힐 때에 낙인효과를 고려해야 함. 낙인 효과(stigma effect)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면 결국 실제로 그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적극적 복지를 위한 학생스포츠복지는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온당히 체육교과를 공부하기를 기대하며, 실제적인 모습은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소외 계층은 비만학생, 여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학생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보통의 경우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학생스포츠복지정책의 명칭을 '소외계층학생'이라 잡으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까지도 매도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의 운영 및 성과

이양구²⁷⁾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최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국가정책의 대표적인 제도로 소개된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력 향상과 정체성 회복이라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이견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의 취지,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최근에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의 발전적 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담론의 대부분이 사회학적인 이론이나 관점에 치우쳐져 있음을 인식하면서, 보다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발전 논리를 위해서는 교육학적 관점과 논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최저학력제의 운영 및 성과와 함께 교육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선수의 학습 역량 계발에 필요한 교육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학교운동부 운영에 영향을 미친 최저학력제 성과²⁸⁾

1. 학생선수의 학력 향상 성과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가 사회적으로

27) 이양구 전임연구원은 체육측정평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역량 계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28) 본 장에서 진술된 내용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2012) 보고서 결과와 유정애(2012)의 논문에서 저자의 승인을 받아 발췌하였다.

로 문제가 되고 있다.²⁹⁾³⁰⁾ 이 문제는 국가수준에서 2009년에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 인재라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과도 맞물려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³¹⁾

다시 말하자면 모든 분야에서 기능 인재에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비단 학생선수의 경우는 과거로 퇴행하는 결과를 자초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의식은 '운동하는 일반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지향하는 학교체육진흥정책(2011년 학교체육진흥법 공포)으로 열매를 맺었고, 특히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정립 또는 시행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는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의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각종 대회 출전에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³²⁾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정식 운영되면서 제도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선수 학력 성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2년에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선수들의 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의 2010년~2011년도 학생선수 성적현황 보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 그 결과 최저학력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에서는 최저 학력 미달 학생 선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9) 유정애, “학생 선수의 학습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방향과 과제”, 제51권 3호, 한국체육학회지, 2012, 157-169.

30)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신한국형 학교 체육 모형 개발 및 평가” 2012,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1차년도 연구보고서.

31)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교육과학기술부.

32) 한태룡/박영옥/김정효/이병준,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 2008, 서울: 체육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1년 ‘최저학력제’ 단계적 시행³³⁾
- 중·고: ‘12년 이후 단계적 시행(‘17년 고3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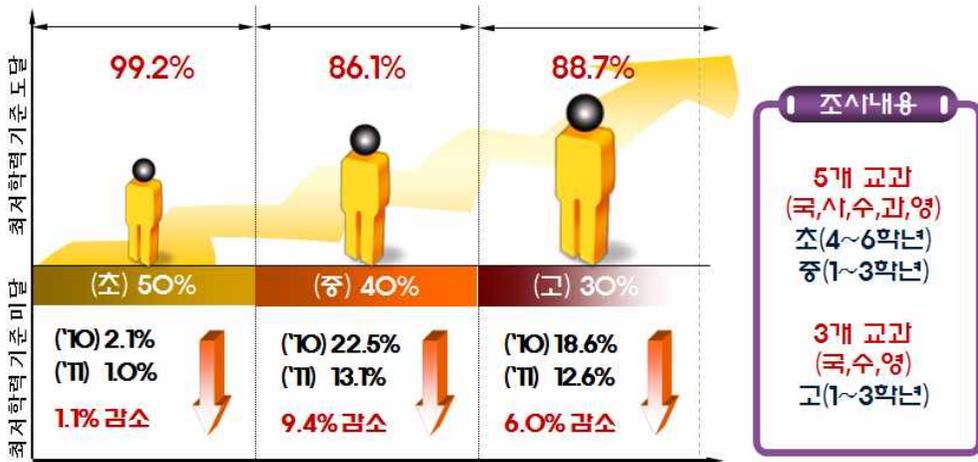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등학교	시범	초4~6						
중학교	시범		중1	중2	중3			
고등학교	시범					고1	고2	고3

- 최저학력 기준: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초)50%, (중)40%, (고)30%
 - 단,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 인정
-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 제제·구제 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3개 교과(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을 분석한 것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 미달 학생 선수의 비율이 2.1%에서 1.0%로, 중학교는 22.5%에서 13.1%로, 고등학교에서는 18.6%에서 12.6%로 각각 감소되

33) 교육과학기술부,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년도 학교 체육 주요업무 계획(안)”, 2012, 학생건강안전과.

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1.1%, 중학교 9.4%, 고등학교 6.0% 각각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0~2011년도 학생선수 성적 현황 조사 결과³⁴⁾]

이러한 성과 배경에는 학교체육 담당 부처와 학교현장, 여러 체육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최저 학력제의 제도가 수정 보완되어 진다면 학생선수들의 기초 학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 진다.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이유와 실제

운동하는 학생선수의 내재된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엘리트스포츠의 온상이 되어 온 학원스포츠는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무시한 채 기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고, 학생선수들은 운동만하는 '기계'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교실이 아닌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자신들에 주된 활동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졌다.

34)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1 학생선수 성적 현황 보고 자료", 2011, 학생건강안전과.

이로 인해 학원스포츠는 위계중심의 권위주의, 집합문화, 획일화된 집단주의, 강요문화 등 문화공동체로서 고립된 '섬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³⁵⁾ 이러한 현상이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강화·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은 모두 승리를 위한 최선책이라 인식하고 있다.³⁶⁾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학원스포츠의 문제점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학력저하에 따른 진로선택의 결정권 박탈, 승리지상주의 학습 및 코치 중심의 운동으로 인한 운동의 가치 상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³⁷⁾³⁸⁾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운동부 운영 및 학생선수의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³⁹⁾⁴⁰⁾⁴¹⁾

본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도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 이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실태와 운동부 문화의 변화를 관찰해 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51개교), 중학교(58개교), 고등학교(42개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종목을 선정하여 학생선수 학력에 관계없이 설문 조사가 진행되어졌다.

35) 류태호/이주옥,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교육", 제43권 4호, 한국체육학회지, 2004, 271-282.

36) 이혁기/박창범/임수원,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D중학교 축구부 사례연구", 제46권 1호, 한국체육학회지, 2007, 181-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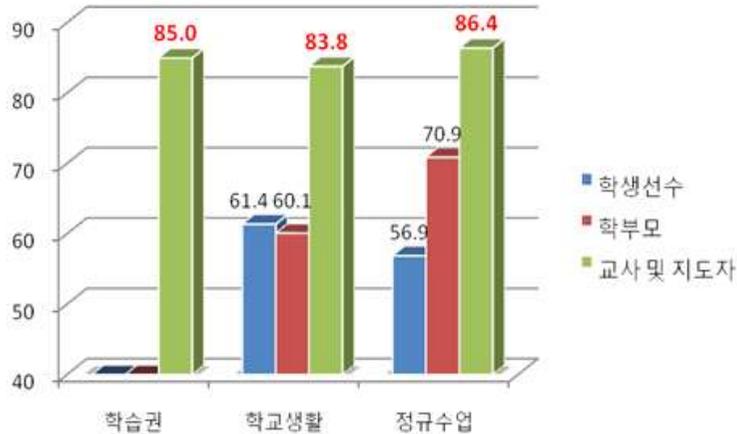
37) 강신옥, "학교 운동부의 운동과 학업 수행 및 운영 실태 조사", 제42권 3호, 한국체육학회지, 2003, 97-109.

38) 신현군/이학준,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운동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제12권 2호, 한국체육철학회지, 2004, 267-280.

39) 이양구/유정애/전선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생선수의 체육 교과태도와 학습의욕과의 관계", 제49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2, 21-31.

40) 한태룡/박영욱/김정효/이병준, 앞의 연구보고서, 2008, p2면.

41) 홍덕기/류태호,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제14권 4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07, 131-15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현황 (%)]

설문 조사 결과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 이후 학생선수의 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적극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학부모의 학습참여 유도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과 정규수업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을 위한 학습권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에 대하여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인 성장, 다시 말해 지덕체의 완성과 관련된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간주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줄 때 비로소 참된 의미의 학생선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²⁾

3. 학생선수의 운동부 학습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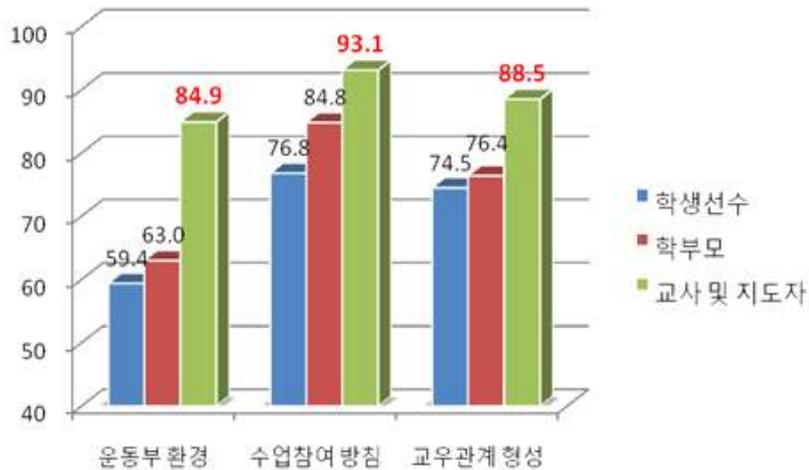
정규수업 참여에 있어 흥미를 가지고 만족, 보람 등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학생의 경우, 여타 외부적인 통제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공부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에 대하여 자신

42) 류태호,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제12권 2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05, 91-108.

감, 적극적 참여 등과 같은 학습태도를 가지게 되는 학생의 경우, 능동적,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학교 수업 현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자신과 관련된 스포츠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운동연습을 하며 그들의 학교 명예와 상급학교 또는 대학진학을 위해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운동에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의 개선과 현 시기에 해야 할 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노력이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 이후 학교 운동부 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학생 선수의 운동문화 변화 현황 (%)]

이 조사에서는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 이후 학생선수들의 운동 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운동부 환경 변화와 정규수업 참여 방침, 그리고 교우관계 형성 과정을 묻는 질문에 학생선수는 59.4% 이상, 학부모는 63.0% 이상, 운동부 담당 교사 및 지도자는 84.9% 이상으로 학교 운동부 환경은 운동부 담당 교사 및 지도자의 적극적 노력과 자세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부하는 환경'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운동문화의 변화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함께 해야 하는 학생임을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었고, 또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실 공간 문화, 행동 패턴, 규범과 맥락을 공유함으로써 교우 관계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운동만을 강요'하던 학교 운동부 관련 제반 문제의 핵심 고리가 풀리고 새로운 운동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시행 적절성 평가

최근에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반세기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체육에 미친 영향을 본다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 운영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영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불완전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주장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제도의 시행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탄력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는 극히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⁴³⁾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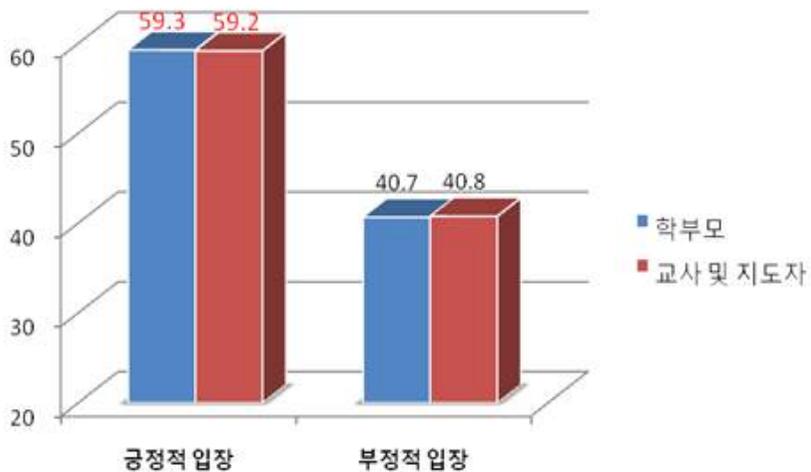
우선 현 시점에서조차 존재해 있는 이 제도의 교육적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51교), 중학교(58교), 고등학교(42교)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의 학부모(1,115명), 운동부 담당 교사와 지도자(300명)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내용은 최저학력제 '시행의 적절성', '적용 과목과 대상 선정의 적절성', '성적기준 평가 비율의 적절성' 인식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졌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43) 유정애, 앞의 연구논문, 2012, p2면.

44) 한태룡, "운동선수의 학력,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2011, 2011년 한국연구재단 대학 중점연구소 선정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1. 최저학력제 시행의 적절성 평가

최저학력제 시행의 적절성 평가 결과는 학생선수의 학부모(59.3%)와 운동부 담당 교사 및 지도자(59.2%) 모두 최저학력제 시행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학력제 도입 취지의 인식 결과 (%)]

하지만, 고등학교 운동부 담당 교사 및 지도자(58.4%)들은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학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경우 경기력 저하에 따른 경기 성적 부진을 우려하는 것에서 발생한 결과로 예측되어지며, 최저학력제 시행이 학생선수의 행복 추구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최저학력제도의 제도적 장치(상대적 성적기준 적용, 시험출전 등)는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A고등학교 김OO 운동부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 중에서/2012. 3. 29>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의 요점은 최저학력제가 학업 부진 및 흥미 부족으로 운동을 유일하게 선택한 학생 선수의 개인 행복 추구권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진로 개발 분야인 운동선수로서의 길을 막고 있다는 관점이다.⁴⁵⁾

현재 일부 종목의 경우 선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 최저학력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강화되는 경우, 선수 개인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현재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일부 비인기 종목의 학교운동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력이 하위권인 학생 선수인 경우 해당 참여 종목의 시합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 선수가 향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력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택 경로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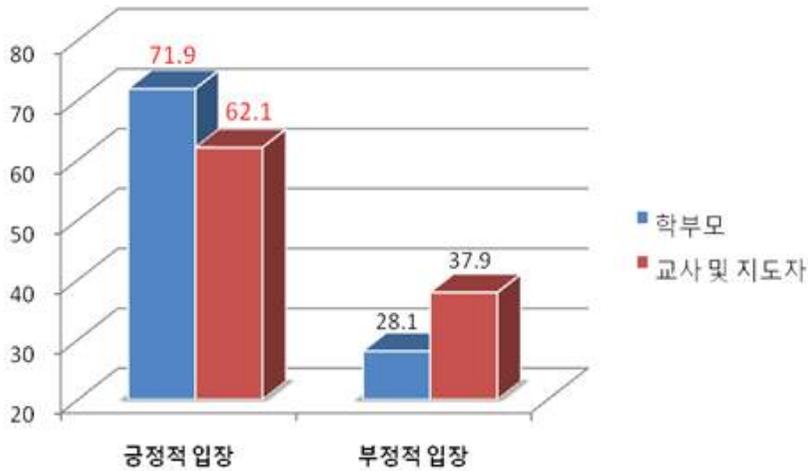
2. 적용 과목 선정의 적절성 평가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 선정의 적절성 평가 결과는 학생선수의 학부모(71.9%)와 운동부 담당 교사 및 지도자(62.1%) 모두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 선정이 적절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학력제도 시행 시기가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추후 대상자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45) 조난심/김성열/박순경/이광우, "2009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시안 개발 연구", 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서 CRC 2010-1.

46) 유정애, 앞의 연구논문, 2012, p2면.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 선정의 인식 결과 (%)]

즉, 최저학력제 과목 선정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보다 학생선수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나 학업 외 봉사점수 취득, 한자검정과 같은 인증 시험 방식으로 평가 유형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한다.

일반 학생들도 성취하기 힘든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을 학생선수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학생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학습역량을 높여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중등학교 유OO 운동부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 중에서/2012. 3. 27>

위와 같은 인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2010년~2011년도 학생선수 성적 현황 보고 자료⁴⁷⁾를 토대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국, 사, 수, 과, 영)에 대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

4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연구보고서, 2011, p4면.

집단간 평균 비교 결과 중, 고등학교 급에서의 집단간 비교에서 중학교에서는 수학 과목(27.0점)에서, 고등학교는 국어 과목(35.3점)에서 차이가 컸었고, 초등학교 급에서는 각 교과목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설문 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선수 학력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학업성적 평균 비교 현황⁴⁸⁾

적용 과목	학교급	표집인원	일반학생 평균	학생선수 평균	평균 격차
국어	초등학교	907	84.5	83.1	1.4
	중학교	916	69.3	47.2	22.1
	고등학교	998	63.3	28.0	35.3
사회	초등학교	907	78.6	76.6	2.0
	중학교	916	66.7	42.8	23.9
수학	초등학교	907	79.2	76.1	3.1
	중학교	916	59.6	32.6	27.0
	고등학교	998	50.6	25.3	25.3
과학	초등학교	907	81.2	79.1	2.1
	중학교	916	66.2	42.8	23.4
영어	초등학교	907	82.3	79.6	2.7
	중학교	916	64.4	38.9	25.5
	고등학교	998	56.2	25.6	30.6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긍정에 인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및 지도자 입장에서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다. 학생선수는 공부와 운동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보통의 경우 학생선수는 운동을 선택하게 된다.

4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연구보고서, 2011, p4면.

학부모 및 지도자는 학생선수가 운동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로 공부에 대한 막연한 미련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최저학력제 적용 과목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사실 그 과목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과목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운동만 하는 학생선수에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관심에서 오는 긍정에 인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및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선수의 성공, 즉 학생선수의 우승일 것이다. 학생선수가 공부를 소홀히 해도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므로, 교과부에서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부만이 강조되는 일반 학생과는 달리 운동선수에게는 공부와 운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일반 학생보다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도 현행 제시된 제도의 틀 속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부와 운동을 서로 다른 차원의 속성으로 바라보면서 공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제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성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력 평가의 대상을 시험용 주지 교과에 한정함으로써 다른 교과 또는 과목 등에서의 '공부'를 통한 학력 평가 수혜 기회를 전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학력제도의 발전적 진화를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공부' 또는 '다양한 공부'의 의미를 신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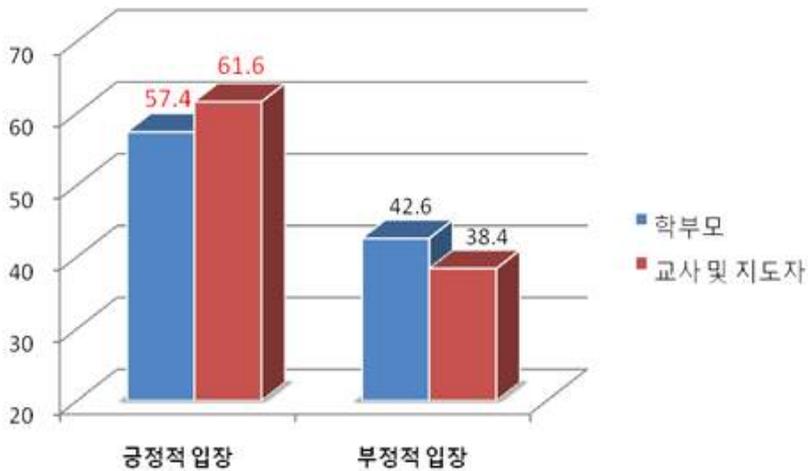
49) 유정애, 앞의 연구논문, 2012, p2면.

3. 상대적 성적 기준의 적절성 평가

최저학력제는 1·2학기 기말고사의 전교생 학급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학생선수의 학력이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수준에 도달하는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적절성은 앞선 조사 대상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학력제 상대적 평가 기준의 적절성 인식 결과 (%)]

학생선수의 학부모(57.4%)와 운동부 담당 교사 및 지도자(61.6%) 모두 최저학력제 상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최저학력제도 시행 시기가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학생선수의 학력 향상 정도에 따라 인식에 변화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최저학력 기준 평가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양한 평가 방식의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일반학생 간 상대적 성적 기준 비율(초: 50%, 중: 40%, 고: 30%)은 학생선수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학생선수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제시되거나 평가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OO 학교체육 전문가와의 인터뷰 중에서/2012. 4. 3>

위와 같은 상대적 성적 기준과 관련된 최저학력제의 운영 실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초기에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석차 백분율에 의거하여 최저성적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선수로서의 활동에 일부분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이었다.⁵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5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해당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3과목(국어, 영어, 수학)이 해당된다.

최저학력기준은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로, 일반학생의 평균 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학생 선수는 35점, 중학생 선수는 28점, 고등학생 선수는 2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⁵¹⁾

이 기준은 상대 평가 기준으로, 학교간, 종목간, 지역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최저학력제의 궁극적 목적이 학습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질상 학생선수의 학습 자체보다는 결과로서의 성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수업 참여가 의무화되어 학생선수가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수업을 듣고 또한 정규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하여 경기 참가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 제도가 추구하는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기에 결과중심의 학습권 보장 제도가 아닌, 과정 중심의 학습권 보장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50) 한태룡/박영옥/김정효/이병준, 앞의 연구보고서, 2008, p2면.

5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연구보고서, 2011, p4면.

따라서 현행과 같은 일반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지향하는 현행 제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교육적 행위라고 볼 수 있기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⁵²⁾을 참조하여 학생 선수 집단에 적합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³⁾

이 절대적 기준에 따라 학생 선수의 학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의 마련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 제도의 반론 의견을 경청하여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학생선수의 학습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방향과 과제

1. 학습 역량 교육의 방향

국내·외적으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과 함께 특수 교육(학습 영재 교육과 학습 부진아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⁵⁴⁾. 최저학력제의 취지와 시행 방법은 특수 교육 중 학습 부진아 교육에 해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 선수를 현재와 같은 분절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즉 학력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때 학습 부진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 선수들을 다른 잣대, 즉 영재 교육과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단순히 학습 부진아가 아닌 스포츠 영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성적'으로 국한되는 '학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생 선수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양방향의 교육적 방향이 동시에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하나는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생애 학습 역량

52) 김경희/상경아/신진아,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비교 분석", 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E 2011-10.

53) 유정애, 앞의 연구논문, 2012, p2면.

54) 김경희/상경아/신진아, 위의 연구보고서, 2011, p16면.

이 필요하며, 다른 하나는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스포츠 인재를 기르기 위한 창의적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1)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생애 학습 역량 교육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의 습득이라는 ‘앎’의 과업으로 획일화되어 있었다. 일찍이 OECD의 여러 나라들은 DeSeCo Project⁵⁵⁾와 같이 실제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에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속에 역량(competency)을 포함하고 있다.

즉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래의 읽고 쓰고 셈하기와 같은 기초 능력에 더하여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능력들은 점차 개인의 생애에 걸쳐 육성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역량 개념은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국한된 구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의 역량이다.⁵⁶⁾ 특히 일반 역량 중에서 핵심 역량(key competency)은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을 포함한 내·외적 능력의 총체⁵⁷⁾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핵심 역량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

55) 이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OECD에서 수행한 것으로, 직업이나 직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삶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규명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56) 유정애, “신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해석”, 제 16권 1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09, 1-18.

57) 이광우/전체철/허경철/홍원표/김문숙,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20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개개 학습자 혹은 사회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라기 보다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을 의미한다(이광우 등, 2009, 5쪽).

학교 교육에서 최근 역량기반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제 세계에 관심을 두면서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특정 맥락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역량은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구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역량은 개인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을 읽어내고 자신의 행동을 그 상황에 맞추는 능력, 공동의 목표나 상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⁵⁸⁾

학생 선수에게도 이와 같은 역량(competency)이라는 교육적 개념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특히 역량 중에서 학생 선수에게는 생애 학습 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역량이 내포하는 의미는 미래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하나의 생활인 또는 직업인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을 강조하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정철영⁵⁹⁾은 “청소년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과정 속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교육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들은 직업 기초 능력의 영역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을 제안하고 있다.

58) 소경희, “학교 지식의 변화 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향 탐색”, 제24권 3호, 교육과정연구, 2006, 39-59.

59) 정철영, “초중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강화 방안”, 제19권 2호, 직업교육연구, 2000, 1-22.

이 영역들은 본 글에서 제안하는 생애 학습 역량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학생 선수 대상의 진로 교육이 극히 미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선수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직업 역량 또는 생애 학습 역량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학교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2) 글로벌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역량 교육

요즘 전 세계가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몰두해 있다. 그 이전부터 각국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창의성 교육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오고 있다.⁶¹⁾ 학생 선수도 체육 교과 측면에서 본다면 수월성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월성 대상인 학생 선수를 위한 고차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 선수의 경우 양극단 중 한쪽 끝에 해당되는 '최저 학력'에 국가사회적 관심이 쏠린 나머지 다른 한쪽의 끝에 있는 미래의 스포츠인재에 대한 창의성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지금 창의성·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자 많은 교육적 투자를 실행해 오고 있다.

최근 기업체에서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찾고 있다.⁶²⁾

창의적 인재란, 창의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의 발전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을 말한다.⁶³⁾⁶⁴⁾

60) 홍원표/이근호,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 적용 사례 연구”, 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2.

61) 조난심/김성열/박순경/이광우, 앞의 연구보고서, 2010, p10면.

62) 김세직/정운찬,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 제 46권 4호, 경제논집, 2007, 187-214.

63) 문용린/최인수/곽윤정/이현주,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한국과학창의재단정책연구 보고서.

이러한 창의적 인제는 체육계 또는 스포츠계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인재상이다. 김세직·정운찬은 인재 유형을 인적자본 차원에서 모방형 인적자본과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2. 인적자본의 유형

유형	특성	학교 교육과의 관계
모방형 인적자본	이미 있는 것, 이미 알려진 것들을 베끼고 따라하는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능력	학교 학습에서 학생들이 '외우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기존의 선진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형성된 인적 자본
창조형 인적자본	아직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는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능력	토론, 발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수업에서 형성될 수 있는 인적 자본

김세직·정운찬이 제시한 창조형 인적 자본의 정의는 정범모(65)의 창의성 개념, '새로운', '보람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힘과 동일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창의성이라면 천재나 영재와 같은 비범한 인물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범모는 창의성은 비범한 인물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분야이던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창의성을 '새로운 뜻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스스로 조금만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를 창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에서의 창의성은 선행 연구(66)67)68)69) 등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

64) 조연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제40권 3호, 교육과학연구, 2009, 215-237.

65) 정범모, "창의력이란: 그 실제와 육성", 2001, 서울: 교육과학사.

66) 윤영길, "일반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본 축구선수의 창의성", 제18권 3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07, 145-164.

67) Scibinetti, P., Tocci, N., & Pesce, C., "Motor creativity and creative thinking in children: The diverging role of inhibition", 23(3),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11,

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스포츠 상황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윤영길은 현대 축구 경기에서 개인플레이보다 조직적인 플레이가 중시됨에 따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술 운용 요인 중 선수들의 창의성, 즉 생각하는 플레이, 판단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한다면 스포츠에서의 창의성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연구는 낙제점이다. 운동 기술처럼 창의성 교육 또는 훈련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의 글은 축구 선수에 대한 역량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생 선수의 창의적 역량을 말해주고 있다.⁷⁰⁾

7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방송을 듣게 되었다. 최○○라는 문화 평론가의 월드컵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평론가는 현대 축구의 진수는 상상력이라고 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빠른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평론가에 따르면 축구의 스피드에서는 단순히 누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축구에서 진정한 스피드는 1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공간을 전술적 상황을 더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축구의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했다.

이 창조적인 상상력은 학생 선수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고, 이는 축구에 대한 사고와 기술이 통합된 전술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축구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축구 능력은 단순히 축구공을 잘 차고 빨리 달릴 수 있는

262-272.

68) Memmert, D., "Developing creative thinking in a gifted sport enrichment program and the crucial role of attention process", 17, *High Ability Studies*, 2006, 101-105.

69) Memmert, D., "Can creativity be improved by an attention-broadening training program?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team sports", 19,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07, 281-292.

70) 유정애, "체육 교과 지식의 본질과 구조 탐색", 2010, 2010년 체육교육한마당 연수자료집. 74-86.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박지성 선수에게 상상력을 갖춘 축구 선수로서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장(captain)으로서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명품 축구는 체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합리적인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글로벌 스포츠인재가 될 학생 선수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학생 선수들이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체력과 경기력을 키우듯이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갖춘 스포츠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생각하는 힘’이 기초가 되어 ‘생각하는 스포츠’가 탄생된다.⁷¹⁾ 이제 학생 선수들에게도 일반 학생들이 받고 있는 창의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주어야 한다. 대한체육회 또는 각 스포츠종목의 경기연맹 또는 협회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각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운동부 지도자 연수를 통해서 ‘창의적인 스포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 교육적 과제

1) 최저학력제의 대안적 도입과 정착

우선, 최저학력제의 용어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선행 연구⁷²⁾ ⁷³⁾⁷⁴⁾⁷⁵⁾의 글에서도 최저학력제에 대한 용어 부적합성이 논의된 적이 있

71) 이학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근거와 대안”, 제48권 5호, 한국체육학회지, 2009, 35-44.

72) 권민혁,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과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의 의의 및 과제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1, 47-60.

73) 류태호/김상범/이주욱/이규일,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74) 이주욱,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교육적 과제”, 2011, 한국스포츠사회학회·한국스포츠교육학회 특별세미나,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의 의의 및 과제를 위한 세

다.

이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태호 등의 보고서에서는 최저학력제는 학습 기회 및 양적 의미를 포함하는 학력지원제 또는 학점보장제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한태룡 등의 글에서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학력이란 의미를 구체화하여 '최저성적인증제'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본 내용의 발제자인 유정애⁷⁶⁾는 「실제학습시간보장제」 또는 「학습역량 증진제」를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실제학습시간보장제의 취지는 현행 최저학력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실 수업의 물리적 참여라는 정규수업이수율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 선수들을 교실 수업 참여시킴으로써 학업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 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만, 학생 선수들의 참여 종목 특성 상 교실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 선수들이 많고, 실제 교실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저하된 학력 차이로 인해 교실 수업에서 쉽게 동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⁷⁷⁾

따라서 학생 선수에게 교실이든 아니든 하루 일과 중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의 실제로 학습한 시간을 스스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교실은 국가에서 수준별 수업⁷⁸⁾⁷⁹⁾⁸⁰⁾⁸¹⁾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일반

미나 자료집. 25-43.

75) 한태룡/박영옥/김정효/이병준, 앞의 연구보고서, 2008, p2면.

76) 유정애, 앞의 연구논문, 2012, p2면.

77) 류태호/김상범/이주욱/이규일, 앞의 연구보고서, 2009, p22면.

78) 교육인적자원부, “체육과 교육과정”, 2007,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79) 유정애, “체육수업비평”, 2005, 서울: 무지개사.

80) 조미혜, “체육 교과와 수준별 교육과정”, 제5권 1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98, 83-98.

8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 연구”,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01-14-1.

학생의 경우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 즉 개인차를 고려 받지 못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선수들을 교실 수업에 앉아있으라고 권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습도우미제도와 대학생 멘토링제⁸²⁾를 통해 개인별 학습을 이행한 후 운동부 감독의 확인 하에 실제학습시간을 인정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학생 선수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학습역량증진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학력제의 대상 과목에 대한 비현실성을 고려한 대안적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학력제의 대상 과목으로 공통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5개 과목으로 한정하고 있고, 선택교육과정인 고등학교는 3개 과목에 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최저학력제의 대안적 제도명과 특징

구분	실제학습시간보장제	최저학력제	학습역량증진제
평가 취지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생 선수가 실제 수업 시간을 채우고 인증 받는 형식	학습권 보호	학생 선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역량 계발
평가 방향	절대적 평가	상대적 평가	절대 평가 + 상대 평가 병합
평가 대상	실제학습시간	초: 국, 영, 수, 사, 과 중: 국, 영, 수, 사, 과 고: 국, 영, 수	실생활중심의 학습 내용
평가 기준	연간수업시수의 80%수준에 해당되는 학습 시간의 달성 여부	일반학생의 성적 평균(초: 50%, 중:40%, 고:30%) 대비하여 도달 여부	(1안) 최저학력제의 과목 축소 (초·중: 5개→3개 과목, 고: 3개→2개 과목) (2안) 국어+수학+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 인증 (3안) 국어+수학+선택 과목(외국어, 한자, 컴퓨터, 독서 등) 인증

82) 한태룡/박영옥/김정효/이병준, 앞의 연구보고서, 2008, p2면.

일부에서는 이 과목들이 실제로 학생 선수의 미래 직업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저학력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에게 미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거나 생활인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역량증진제의 2안처럼 2개 공통 필수 과목(국어와 수학)으로 한정하고, 영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1개 인증으로 외국어 학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요즘은 운동능력만을 가지고 전문인이라고 평가받기 힘들다.⁸³⁾ 이제는 소양능력을 갖춘 세계인이 되어 선수로서의 삶 무대를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⁸⁴⁾

또한 3안처럼 국어와 수학은 그대로 포함시키고, 외국어 이외의 다른 영역의 학습 기회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교양과 기본 생활 능력을 갖춘 생활인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능력, 한자능력, 컴퓨터 능력 등을 갖추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⁸⁵⁾

2)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전 연구⁸⁶⁾⁸⁷⁾⁸⁸⁾⁸⁹⁾의 주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생선수의 참여 종목과 학교급에 따라 학생선수의 정규수업이수 참여 여부가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종목간 또는 학교급간 교육 환경 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최저학

83) 최의창, “체육전문인교육”, 2009, 서울: 생능출판사.

84) 이학준, 앞의 연구논문, 2009, p22면.

85) 김선희/강신복, “실기전문인의 양성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0권 1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03, 79-96.

86) 권민혁, 앞의 세미나자료집, 2011, p22면.

87) 류태호/김상범/이주욱/이규일, 앞의 연구보고서, 2009, p22면.

88) 임수원, “공부하는 학생 선수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 제50권 2호, 한국체육학회지, 2011, 45-57.

89) 한태룡/박영욱/김정효/이병준, 앞의 연구보고서, 2008, p2면.

력제가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방안에는 학습도우미제도, 대학생 멘토링제, 가정교사제 등이 존재한다. 이 제도들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학생선수의 학업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지원, 인력 예산, 인력의 질 관리 등의 기타 소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 제도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학교운동부 환경에 적합한 것은 온라인 학습 및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장소, 지역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 선수 스스로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학습 이외의 자신의 진로 고민이나 기타 선수생활의 어려움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이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만 한다.

이 온라인 학습 및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학생 선수 전체의 학력 수준을 전수 조사를 통해 측정 한 후, 학력 수준을 일반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4단계(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또는 그 이상 단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선수의 학력 수준에 적합한 학습 및 진로 프로그램을 맞춤형 e-book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⁹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소요가 수반되겠지만, 학생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

공신력 있는 기관주도로 학생선수의 학력 전수 조사를 매년 동일하게 시행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학력 추이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학생선수 등록 시 학력 수준을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점

90) 김경희/상경아/신진아, 앞의 연구보고서, 2011, p16면.

검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력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필요 때마다 적절하게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 학년,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의 세부 절차를 수립하고, 학력 4단계에 따른 학습 요소의 선별과 교재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안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우선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www.basics.re.kr)를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적지 않은 학생선수들이 운동 중단을 경험하고 학교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운동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선수의 진로로 운동 선수가 유일하지 않음을 초기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운동 선수 이외의 다양한 체육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안내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체육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⁹¹⁾

91) 유정애/김원정/김방출, “체육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2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제 4 장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실태 분석

차은주⁹²⁾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요약

학생선수는 우리나라에 약 11만명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약 2%만이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며 약 98%는 운동을 중단한다. 또한 부상 혹은 진학문제 등 자발적, 비자발적인 운동중단 후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운동중단과 학업소홀은 졸업 후 낮은 사회적응능력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여 엘리트 체육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로서 매우 불안정적인 진로는 학생시기 뿐 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정착해 나가는 데도 영향을 주어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실태 분석을 통해 학생선수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해 보고 그들이 현재 삶에서 느끼는 요인은 무엇이고 과거 학생선수시기에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해 역설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또한 운동중단 학생선수이지만 성공적인 직업경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운동중단의 생애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학업과 사회에 적응해 나갔는지 공통적 요인을 파악하여 앞으로 운동중단을 경험 할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중단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92) 차은주 전임연구원은 중앙대학교에서 스포츠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8월까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생선수 진로개발' 연구를 전담하였다. 현재는 운동하는 일반학생 영역의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현황

1) 진로경로의 개념

최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존재의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학생선수의 진로(career) 또한 사회적 경쟁구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최적의 진로 경로 개발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는 넓은 의미에서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으로 한 개인이 일생동안 참여하는 일과 여가활동의 연속적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의 활동을 의미하며 진로는 일생동안 갖게 되는 직업, 직무, 직위 등 일이 곧 진로인 것이다⁹³⁾. 또한 진로경로는 개인이 생애 과정에서 선택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으로 직업을 갖기 전과 직업을 갖는 것, 그리고 직업에서 은퇴하고 난 후의 생활을 통칭한다.⁹⁴⁾

진로에 대한 방향의 설정과 탐색은 대개 청소년기에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의 교육은 학습적 역량과 사회성을 길러주며 경쟁사회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적 길을 열어준다. 특히 Super의 직업발달이론에서 볼 때 진로 탐색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⁵⁾. 그러므로 학생선수의 진로 경로 개발의 최선과 다양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선수는 진로 결정과 선택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 교육적 혜택을 받는 청소년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체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유명 운동선

93)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94) 김병숙, 손민정(2006). 생애사건유형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5(1), 89-114

Super, D. E.(1990). A life-span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95) 손경순(2008). 중학교 진로교육의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학교장 진로교육특별연수).

수들을 배출하는 요람이다.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력테스트를 시작으로 학교 운동부는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소질을 갖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엘리트스포츠 선수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여 국위 선양과 사회체육 저변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개인적 차원으로는 운동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⁹⁶⁾.

하지만 학생선수 진로경로는 피라미드식 구조로서 대부분 학생시기에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학습에 부적응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어린나이부터 운동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멀리하다가 부상과 조기 은퇴로 인해 성인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인구감소와 힘든 일을 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점점 선수층이 감소되고 있고 2000년부터 대학특기생 선발제도가 동일계열로만 진학하도록 결정되면서 체육특기생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⁹⁷⁾. 또한, 학생선수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정책적 변화와 연구들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학생선수의 진로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생선수의 진로경로는 <그림 1> 과 같이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생선수로서의 진로 경로이며 둘째, 운동을 중단한 학생선수의 진로 경로이다.

96) 최관용(2009). 학교체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학교체육진흥세미나 자료집.

97) 이종형, 황관식(2009). 체육교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사례 연구. **체육과학연구**, 20(3), 62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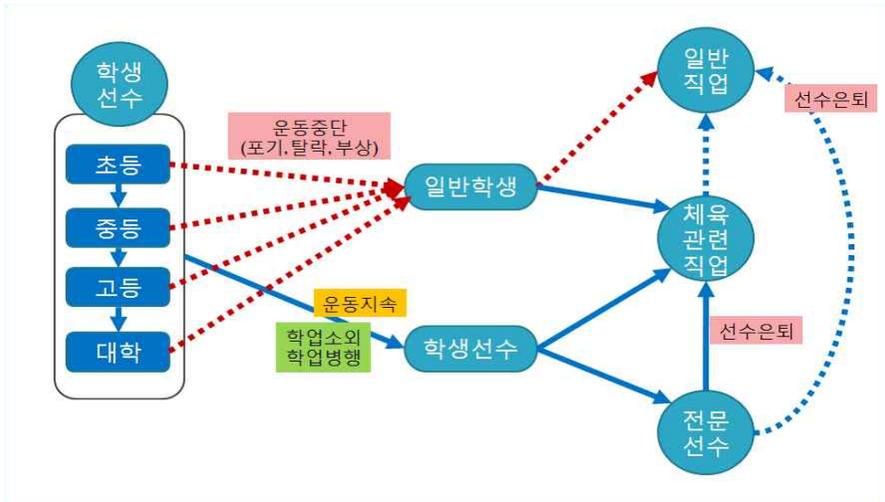


그림 15.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개념도

체육특기자 제도

우리나라의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도에 발효되어 지금까지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체육기량이 우수한 선수에게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우수 선수의 연계적 양성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유능한 체육지도자의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의해 개별 학생선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의거 특기자로서 진학하게 되며 그 절차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대교협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선발기준에 따라 개별 대학의 장에 의해 선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대학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선발규모, 사정방식 등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2) 학생선수의 진로경로와 문제점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다.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과는 담을 쌓은 채 운동에 매진하며 무한경쟁 시스템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일반학생과는 차별된 인생경로를 경험한다⁹⁸⁾. 그렇다면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생선수의 진로 경로는 무엇이 다르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또한 이른 시기의 진로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운동중단은 학생선수의 진로경로에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업은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운동중단으로 인한 학업역량 부족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직업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선수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학생선수로서 입문시기를 살펴보면,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4~5학년 혹은 중학교 1~2학년 시기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운동을 중단하는 시기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44.8%,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28.5%,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38%로 나타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운동시작 후 운동 중단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⁹⁹⁾. 진로를 일찍 결정하고 그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 몰입하는 것은 전문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학생선수로서 입문과 중단이 학령기에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2009)에서 2004~2009년에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약 59,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선수 진로경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선수의 운동 중단 요인은 운동 능력 부족, 운동부생활 불만족, 대안관계 등의 요인보다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학생선수 스스로가 선수로서의 미래 가능성을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운동선수

98) 류태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99) 체육과학연구원(2005). 스포츠관련 직업의 특성과 스포츠산업의 고용효과 분석.

로서의 진로 선택이 미래에 대한 성공과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학생선수의 진로 개발 정책에 큰 시사점을 준다.

학생선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요인들은 학업결손, 부정적 운동부 문화, 현실감 없는 제도와 정책, 운동중단 후 진로 문제 등으로 구분된다. 각 요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학업결손의 문제.

학생선수는 연습과 시합 출전 등으로 인한 학업결손으로 학력저하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⁰). 학생선수들은 청소년기에 운동에 몰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거리가 먼 청소년기를 보내는 실정이며 훈련과 대회참가로 인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정책적 구조의 현실에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¹⁰¹). 이러한 결과로 학생선수들은 육체적이 아닌 지적인 노력을 요하는 직업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어 제 2의 생활이 시작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¹⁰²). Coakley(2011)¹⁰³)는 고등학교와 대학 팀에서 스포츠를 했던 사람들은 유사한 사회계급과 교육환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지 못하며 전직 운동선수들이 유사한 또래들에 비해 미래의 구직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이와 같이 운동선수들은 치열한 시합경쟁을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상대적으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여가생활에서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한적 사회화와 소외는 삶의 과정에서 확립되는 사회계급의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부정적 사회화의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승리제일주의 및 학교운동부 문화의 문제.

100) 대한체육회(2010). 학교운동선수의 진로 및 직업의식 연구.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101) 임수원, 이정래(2002).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중도탈락과 학교생활적응상의 문제점 및 대책.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231-246.

102) **김육권, 임수원(1999)**. 운동선수의 프로지위 성취 가능성과 은퇴에 관한 문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 141-160.

103) Coakley, J. (2011). Sports in society 10th(현대 스포츠사회학, 구창모, 권순용 역). 서울: 대한미디어.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입상에 학교운동부가 기여하고 있으나, 빗나간 승리주의와 합숙 등의 학교운동부 문화로 인한 인권 침해, 중도탈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¹⁰⁴⁾. 이와 같은 학교운동부 문화는 힘든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어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체육의 구조는 한계를 맞고 있다(대한체육회, 2010). 운동선수를 지망하는 청소년의 감소로 인해 선수 자원 부족, 인기종목 편중현상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는 더 이상 고되고 힘든 운동선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요즘같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강압적 통제방식 위주의 훈련 방식이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선수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비체계적인 진로 관리의 문제.

학생선수의 진로 지도 방식은 선수선발과 관리 차원에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선수의 주먹구구식 선발과정, 선발이후에는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인 개인 Data 관리로 인해 경기력 향상에 대한 일정 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 종목에 대한 비체계적 관리가 선수와 지도자 측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졸업 후 진로가 중요 관심 영역인데 경기력 향상 달성 실패로 인한 체벌 등의 문제로 운동중단 등 부정적 현상을 초래한다(체육과학연구원, 2009)¹⁰⁵⁾. 학생선수의 진로 경로는 피라미드식 구조로 나타나는데 학생선수로서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선수가 대학교 3학년까지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2.5%에 불과하여 극소수만이 전문운동선수로서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학생선수의 상급학교로 진학은 운동선수로서 지속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진학은 대회참가로 인한 운동성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선수의 학습참여는 당장의 운동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적 투자에 밀려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연히 소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생선수들의 운동중단¹⁰⁶⁾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

104) 체육과학연구원(2009). 학생선수 진로경로 연구.

105) ----- 학생선수 진로경로 연구.

학생선수들은 운동중단 후에도 그동안의 학업소홀로 인한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 문제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선수들은 부상과 경기력의 한계, 연령, 건강, 가정환경, 구타 및 폭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운동중단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¹⁰⁷⁾. 운동중단은 운동선수의 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진로의 전환은 그동안 운동선수로서 기울였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을 뒤로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므로 학생선수의 진로 경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은 운동 중단 이후에 다시 일반학생으로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운동참여 기간 동안 운동 몰입으로 소홀했던 학업과정을 실제로 운동중단 후 일반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습과정으로 따라가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의 운동중단 문제는 심리적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귀결되며 새로운 진로에 대한 적응능력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사회에도 적응 못하는 사회 부적응 즉, 사회적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⁰⁸⁾.

106) 운동중단은 중도탈락, 운동포기, 은퇴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중도탈락, 운동포기 등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운동중단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용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중도탈락은 타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며 은퇴, 운동포기는 스스로 운동을 중단하는 자발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운동중단은 학생선수로서의 진로를 전환하여 운동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107) 대한체육회(2010). 학교운동선수의 진로 및 직업의식 연구.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박광진, 이강현(2011). 프로 경륜선수의 직업 전환 인과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2), 35-52.

108) 이혁기(2009).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함의와 실천적 과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출처: 2008년 9월 2일 KBS2 TV 방영 [시사기획 씬] 슬픈 금메달 中

그동안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운동중단을 다루며 운동중단 이유, 운동부 분위기 인지, 운동선수로서의 자신감과 인성, 지도자, 동료와의 갈등 등과 같은 심리적 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었다¹⁰⁹⁾. 또한 학생선수들의 운동중단은 학교 내의 문제, 수업결손으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로 연결되어 왔다¹¹⁰⁾. 그러나 앞으로의 학생선수 진로 분야의 연구는 정책과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진로는 개인의 문제 혹은 작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데 고유한 시대적, 문화적 특성과 환경을 벗어나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109) 이승희(2001).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10) 체육과학연구원(2009). **학생선수 진로경로 연구**.

2.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분석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선수 출신의 사회인들이 처해 있는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을 파악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진로경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선수들이 진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운동중단으로 인한 생애사건으로 차별화된 인생경로를 거친다.

운동중단 이후 사회인으로서 진로경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변화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계급,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기회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개인의 수입, 부, 교육수준, 직업, 사회적 연고에 기초하여 사회계급을 형성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기회가 다르게 작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사회계급의 사람들은 비슷한 삶의 기회 즉, 경제적 성공과 권력을 획득할 비슷한 확률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진로 분야의 연구자는 진로가 ‘개별적 독특성’과 ‘유형화 가능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진로는 개별적 특성인 동시에 동일한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진로는 유형화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진로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개인이 받은 교육정도 및 내용, 성별, 계층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이들 요인에 따라 진로는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리고 진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판별로 그 다양성이 일정부분 범주화가 가능하다¹¹¹⁾. 그러므로 학생선수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중단 선수들의 형성하는 사회계층 조사를 통해 운동중단 이후 진로 경로를 밝히는 것은 객관적인 실태조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현상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선수는 어떠한 직업경로를 경험하고 사회화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선수로서 성공적 진로경로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학생선수로서 운동중단 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실태를 파악하고 직업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

111) 임 언(2004).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로 한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안정된(성공한) 운동중단 학생선수는 운동중단 후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극복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특징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1)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 실태

학생선수의 진로는 극소수의 학생선수만이 운동선수로서 생존하는 피라미드 구조(중학교 1학년 학생선수가 대학 3학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2.5%)¹¹²⁾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중단한 학생선수들이 학업결손으로 인해 학업 부적응가 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일반사회에도 적응 못하는 사회적 무능력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운동중단 학생선수 출신 사회인 총 303명을 대상으로 직업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선수 진로 경로의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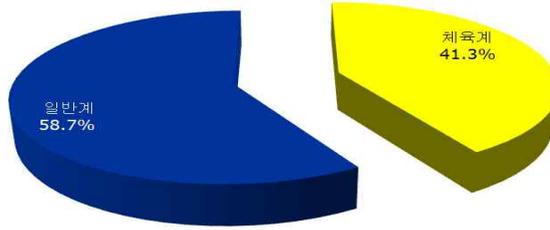
■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 실태 분석 결과

●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 분야: 일반계 비율이 높음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야를 크게 구분해 보면 ‘일반계’가 58.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체육계’는 41.3%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직업군을 살펴보면 ‘교육분야’가 19.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분야’ 13.3%이며, ‘판매영업분야’는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112) 체육과학연구원(2009). 학생선수 진로경로 연구.

(n=3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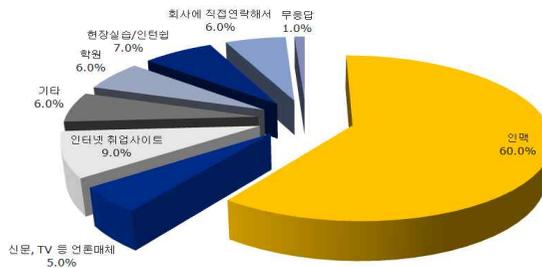
운동중단 학생선수 직업 분야

◎ 인맥의 소개 비율이 높은 취업 경로

또한 첫 직업을 포함해서 모든 직업 전환의 경우 취업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인의 소개’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취업사이트’ 9.6%, ‘선후배’ 8%, ‘코치’ 8%, ‘친구’ 7%, ‘현장실습 및 인턴십’ 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맥으로 인한 비공식적인 취업경로와 공공채용방법 취업경로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인’, ‘친척’, ‘친구’, ‘감독’, ‘코치’, ‘부모’, ‘업무상 지인’ 등의 비공식적 채널인 ‘인맥’을 이용한 취업경로가 60%이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사이트’와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취업경로가 9% 순으로 나타났다.

(n=3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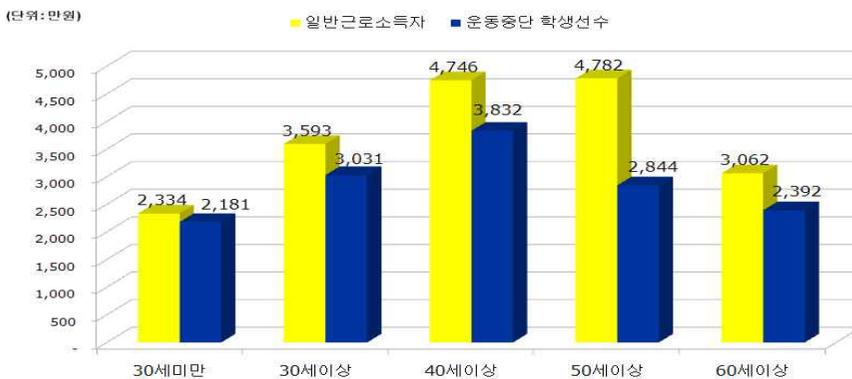
운동중단 학생선수 취업경로의 유형별 분석

●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바로취업’ 52.5%, ‘기간소요’ 47.5%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소요’에 응답한 경우 ‘1~3년’ 30.0%로 가장 높았으며 ‘3~6년’ 14.2%, ‘6년 이상’ 1.3%으로 응답하였다.

●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지난 해(2011년) 연봉 현황 및 수준별 구분

응답자의 지난해 연봉을 묻는 질문에는 연봉이 ‘2,001~2,500만원’이 17.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4,501~5,000만원’ 12.5%, ‘3,001~3,500만원’이 11.9%, ‘1,001~1,500만원’은 11.2%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국세청에서 제시한 일반근로소득자의 연령대별 평균연봉과 비교한 결과 연령대 전반에서 운동중단 학생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근로소득자 낮게 나타났다. 30세 미만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냈고 50대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운동중단 학생선수 출신 근로자와 일반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 비교

● 현재 직장에서의 고충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질문 문항에는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이 2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직장의 불안정성’ 18%(56명), ‘업무 능력습득’ 14%(46명), ‘상사-동료와의 관계’, ‘적성-흥미와 불일치’ 13%(43명)의 순으로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 운동중단 선수의 고용형태별 분석

첫 직장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정규직’ 38.3%(120명), ‘비정규직’ 39.6%(116명)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 22.1%(67명)로 나타났다.

□ 조사를 요약해 보면 비정규직의 비율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고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근로소득자와의 소득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성 개발의 필요가 있음. 또한 임금과 직장에서의 복지혜택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 운동중단 선수들의 직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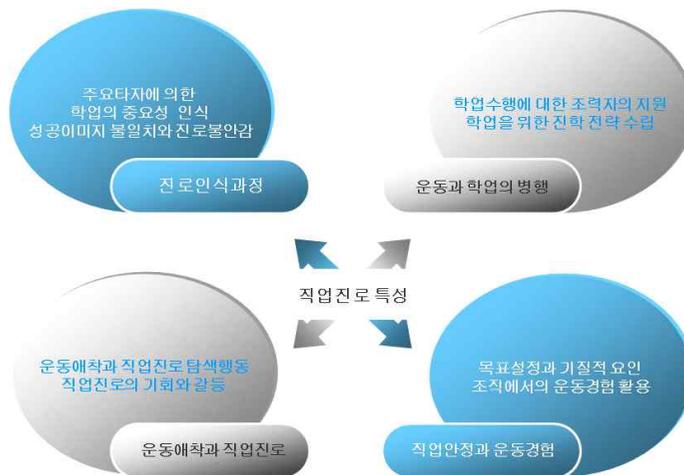
또한 비공식적 경로의 인맥에 의한 취업률이 높으므로 공식적 채용정보 제공의 확대를 통해 공식적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문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보 수집의 채널로 인터넷 취업 사이트의 이용이 가장 높으므로 전문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안정적인 직업 소유자인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진로 특성 요인

직업진로는 경제활동을 위한 구직과정 및 직업전환의 요인, 사회봉사

등 비경제활동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을 의미한다¹¹³⁾. 직업은 진입하는 직업 분야에서 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 직업진로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¹¹⁴⁾.

한편 운동중단 학생선수 중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운동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을 겪고 극복하게 되었는지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와 같이 운동중단 이후 직업형성과과정의 경험 사례를 통해 직업진로의 특성 요인을 파악한다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운동중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직업진로 특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안정적인 직업 소유자인 운동중단 학생선수 직업진로 특성
요인 개념도

113) Super, D. E.(1990). A life-span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114) 한준, 장지연(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work history)과 생애과정(life-course). 노동경제논집 특별호. 23, 33-53.

◎ 주요타자의 학업강조로 인한 진로 불안감 형성

주요타자(부모, 가족, 감독, 코치 등)에 의한 지나친 학업 강조는 진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학생선수로서의 직업진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서 학업에 소홀하게 되고 좋지 않은 학업 성적으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 등 불안감이 표출되었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학업소홀=미래진로의 위협요소’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운동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체육과학연구원(2009)¹¹⁵⁾에서 실시한 학생선수 진로경로 실태조사에서도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안하고 이것(운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앞으로 정말 운동을 계속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운동선수로 유명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박중원).

◎ 운동과 학업의 병행을 위한 전략적 행동 수립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기도 하였다. 운동지속과 운동중단의 진로 고민을 하였으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였다.

또한 학업수행에 대한 조력자의 지원이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운동선수로서 활동하면서 소홀해진 학업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두 군데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115) 체육과학연구원(2009). 학생선수 진로경로 연구.

그 학교는 양궁으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운동부가 산속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때 생각에 저기 들어가면 꼼짝없이 활만 쏠것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부를 전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학교를 선택했어요(박성호).

◎ 운동애착과 직업진로의 기회와 갈등

운동중단 후에도 직업진로 선택 과정에서 스포츠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 했으며 운동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비록 운동을 중단했지만 선수로서가 아닌 운동과 연관된 직업진로를 희망하였다. 한편 대부분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뚜렷한 목적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며¹¹⁶⁾, 학생선수 또한 구체적인 목표 없이 운동에만 몰입한다¹¹⁷⁾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체육선생님이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좋은 분이었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닮을 수도 있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육교육학과 입학과 동시에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박중원).

안정된 직업을 가진 운동중단 선수들은 스포츠에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워 직업진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개인적 기질은 직업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회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성격 등 주변인들에게 성실한 인상을 주어 추천의 대상이 되었으며 직업진로과정에서 인맥에 의한 취업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60%)가 세계적 평균 의존도(33%)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¹¹⁸⁾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116)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7) 서희진, 김미선(2011). 여자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정체감 혼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0(6), 47-60.

118) 김영철(2010). 인적 네트워크(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최문경, 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직장까지. **직업능력개발연구**, 11(3), 23-48.

한편, 직업진로 탐색과정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차별적 시선 경험과 극복과정이 있었다. 특히 인맥 추천이 아닌 공채 구직과정에서 운동선수 경력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였는데 취업 후 직장의 적응과정에서 차별적 시선을 탈피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했어요. 면접과정에서 운동선수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운동선수 출신인데 사무적인 일을 잘 하겠냐 머 이런 식이었죠...취직 후에는 무조건 성실히 했어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어요 (조현진).

◎ 직업안정과 운동경험의 활용

직업적으로 안정화되기까지의 기간은 직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5~7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취업 후 안정화되기까지 업무의 숙달 조직 적응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운동선수시기에 힘든 훈련을 견디면서 생긴 인내심과 끈기는 직업진로의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에 처음 실기 강사로 입사했어요. 실기 강사 수명이 짧잖아요. 그런데 사무직을 보니까 ...제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 내 업무를 다 알아야겠다 생각했어요(송희석).

운동을 10년 했는데...컴퓨터, 엑셀 다 배워서 했죠. 일반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잘해도 우리 같이 운동하라고 10년 시간주면 아마 우리만큼 운동을 잘하지 못할 걸요(최봉섭).

한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운동중단 학생선수들은 취업 후 직장 내에서 동호회 활동 등 회사조직의 스포츠 활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활발한 스포츠 활동과 함께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조직생활에서의 융합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건강관리, 체력관리 등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조직 내에서 동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는 조직 관리를 위해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권장해요. 아무래도 제가 체력도 되고 어떻게 몸을 써야 하는지 아니까..저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죠..등산, 스키, 마라톤 뿐 만 아니라 요즘은 회사 계열 별 축구 대회도 있어서 선수로 뛰고 있어요(양성곤).

■ 학생선수 출신 사회인들의 직업적 성공사례 발굴과 맞춤형 진로지도에 대한 필요성 대두

주요타자(부모, 가족, 감독 등)에 의한 지나친 학업의 강조는 선수로서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시켜 운동태도 및 직업진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성공사례의 발굴로 스포츠 관련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주요타자에 대해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진로경로개척 행동의 수준

진로경로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직업과 관련하여 승진 등의 수직적 경로이동과 부서이동 및 이직을 통한 수평적 경로이동을 포함한 진로변화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진로행동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경로에서 승진, 진급, 전직 등 경로를 개척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진로경로개척행동의 개념이다¹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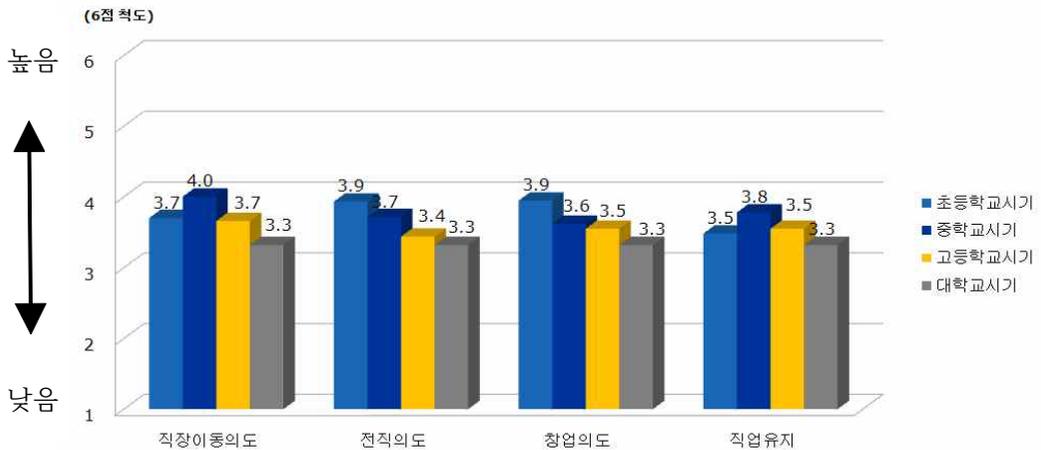
운동중단 학생선수들은 청소년기 경력단절로 인해 직업획득과 직업진로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진로경로개척 행동의 수준 조사를 통해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진로경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진로경로개척 행동은 직장이동의도, 전직의도, 직업유지의도, 창업의

119)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도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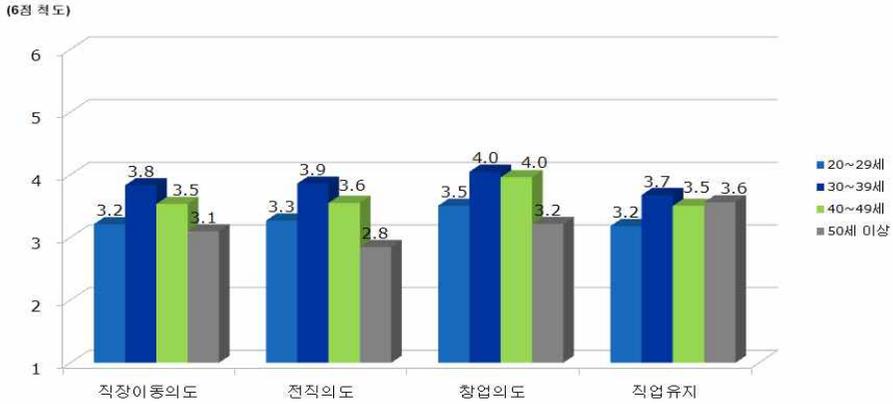
■ 운동중단 학생선수 직업인의 진로경로 개척 행동 수준

운동중단 시기에 따라 진로개척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운동중단 시기에 따라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운동을 중단한 경우 직장 이동 의도가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유지 요인에서도 3.8의 평균으로 높게 나타나 직장이동의도와 직업유지의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중단 시기별 진로경로개척 행동 수준

또한 연령에 따른 진로개척 행동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직의도가 2.8의 평균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39세'와 '40~49세'의 창업의도가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9세'와 '40~49'세의 직장이동의도 요인의 평균은 3.8, 전직의도 요인의 평균은 3.9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로경로개척 행동 수준

□ 일반적으로 ‘30~39세’와 ‘40~49’ 세는 장년층에 속하는 기간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서 그들의 삶에서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만족이 크며 일에 대한 생산성도 높은 시기이다. 융통성과 여러 가지 직무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현재 노동시장의 현상은 진로경로개척 행동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운동중단 학생선수 직업인의 진로경로개척 행동의 수준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역동적 흐름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직업유지 요인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직과 직업유지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동중단 학생선수 직업인의 진로경로개척을 위해 일시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생애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직업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학생선수 직업진로 교육의 방향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경기실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성실성, 잠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체육특기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전인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선수들은 운동만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주로 주요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도자들이 인식하는 진로 결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타자는 지도자, 부모, 자기 자신으로 지도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결정의 주요 요인들은 선수 자신, 경기력, 부모, 지도자, 운동부 문화 등으로 나타났다¹²⁰⁾. 그러므로 주요타자의 인식을 통해 운동지속과 중단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

스포츠 산업분야에서는 스포츠관련 고용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포츠관련 직종은 약 97개¹²¹⁾로 다양한 스포츠관련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수렴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운동중단 선수의 직업적 성공사례의 발굴을 통해 직업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정적으로 직업을 소유한 운동중단 학생선수 출신들의 직업진로 과정의 특성적 요인은 학생선수들의 진로지도의 현장에 현실적인 경험을 전달하여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직업적으로 안정화된 운동중단 선수들의 성실함은 지인들의 추천

120) 대한체육회(2010). 학교운동선수의 진로 및 직업의식 연구.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121) (체육과학연구원, 2005)

이 대상이 되었다. 국내 구직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60%(세계적 평균 의존도 33%)으로 나타나¹²²⁾ 직업진로과정에서 인맥에 의한 추천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인맥형성과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즉, 운동중단 학생선수들의 취업경로에서 비공식적 경로인 인맥에 의한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다양한 취업경로가 부족하므로 공식적 채용정보 제공의 확대를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문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위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과거 운동에 대한 애착과 운동경험은 조직에서 진로경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조직에서 진로경로 개척 단계는 입사, 진로경로 초기, 진로경로 중기, 진로경로 후기로 구분되며 각 진로경로 개척 단계마다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기술, 지식은 조직 내에서의 화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운동경험과 운동기술의 습득은 미래 개인이 형성하는 직업진로의 과정에서 직업 진로의 안정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육과학원(2005)¹²³⁾은 스포츠관련 직업의 다양성과 고용특성을 분석하여 미래 스포츠관련 유망 직업을 제시하면서 스포츠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인력의 취업 문제에 해결을 위한 스포츠관련 교육훈련 인력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문 스포츠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업 전략은 체육 특기자 수가 줄어들어 체육계의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 방안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¹²⁴⁾. 즉,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실업률 문제가 심

122) 김영철(2010). 인적 네트워크(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23) 체육과학연구원(2005). 스포츠관련 직업의 특성과 스포츠산업의 고용효과 분석.

124) 박동열, 김대영(2006).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26(1), 1-32.

각한 상황에서 학생선수로서 운동능력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의 직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체육 관련한 직업의 종사를 통해 전문성을 살린다면 노동시장에서 직업적 성취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특히 학생특기자 제도가 대학진학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서 벗어나 학생 선수가 체계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직업을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육전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선수 특기자 제도 안에서 동시에 병행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체육 특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진로 개발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은 ‘운동밖에 모르는 기계’, ‘운동선수로서 한 번 탈락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스포츠 진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학교체육 정책

저자: 권민정, 조남용, 이양구, 차은주

발 행 2012년 11월

발 행 처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연 락 처 전 화 02) 820 - 6371

팩 스 02) 812 - 0740

홈페이지 <http://pelab.cau.ac.kr/>

인 쇄 희동문화사
